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경 영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연구개발 (R&D) 활동 수준 결정 요인과 역할 유형에 관한 실증연구

201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성 길 용

경 영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연구개발 (R&D) 활동 수준 결정 요인과 역할 유형에 관한 실증연구

지도교수 최순권

이 논문을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성 길 용

성길용 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25일

주　　심　　경제학 박사　　김은채 (인)

위　　원　　경영학 박사　　김석수 (인)

위　　원　　경영학 박사　　이춘수 (인)

위　　원　　경영학 박사　　조연성 (인)

위　　원　　경영학 박사　　최순권 (인)

목 차

Abstract v

Ⅰ. 서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4

Ⅱ. 이론적 배경 6
1절 기업 국제화와 다국적기업에 관한 연구 6
1. 시장 변화와 다국적기업의 탄생 6
2.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국제화 이론 8
3.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역할과 기능 10
4.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핵심 역량 14

2절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연구개발(R&D) 활동 수준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15
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연구개발(R&D) 활동 요인 15
2. 현지 환경 특성 요인 18
3. 기업 특성 요인 21

3절 다국적기업 자회사 역할 유형 요인에 관한 연구 24
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 24
2.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역량 활용 요인 27
3.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시장 지배력 요인 29

Ⅲ.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31
1절 연구 모형 31

2절 연구 가설 33
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결정 요인 33
2.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과 연구개발(R&D) 활동 44

Ⅳ. 연구 방법 50
1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50
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결정 요인 변수 50
2.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 구분 변수 54

2절 자료의 수집 55

Ⅴ. 실증분석결과 56
1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56

2절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결정요인 분석 60
1. 신뢰성 분석 60
2. 요인 분석 62
3. 상관관계 분석 65
4. 다중회귀 분석 66

3절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유형과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72

Ⅵ. 결론 80
1절 연구 결과와 시사점 80

2절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84

참고문헌 86
설문지 96

표 목 차

<표 Ⅲ-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 구분	43
<표 Ⅳ-1>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결정요인 변수의 측정	53
<표 Ⅴ-1>	자회사의 국내 분포	57
<표 Ⅴ-2>	자회사의 모기업 국가 분포	57
<표 Ⅴ-3>	자회사의 국내 진출 시기	58
<표 Ⅴ-4>	자회사의 투자 자본금	58
<표 Ⅴ-5>	자회사의 종업원 수	59
<표 Ⅴ-6>	자회사의 매출액	59
<표 Ⅴ-7>	자회사의 연구원 수	60
<표 Ⅴ-8>	자회사의 연구개발(R&D)비용	60
<표 Ⅴ-9>	신뢰성 분석	61
<표 Ⅴ-10>	요인 분석	63
<표 Ⅴ-11>	상관관계 분석	65
<표 Ⅴ-12>	다중회귀 분석	67
<표 Ⅴ-13>	자회사 군집별 교차분석	73
<표 Ⅴ-14>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	76
<표 Ⅴ-15>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유형별 특성	77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의 구성 5

<그림 Ⅲ-1> 연구 모형 32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of local R&D activity level and the typology of role of foreign MNCs' subsidiaries

Seong Kil Yong

Divis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typology of role and the level of R&D activities of MNCs' foreign subsidiaries in international business. First, we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s of the local market and the capability of the subsidiary, MNC HQ, and resource(knowledge) exchange among MNCs at the level of subsidiaries' R&D activity. Second, the type of subsidiary is classified by the level of MNC use of subsidiary competence(MUSC) and market power(MP). We used a questionnaire survey with 1,016 foreign subsidiaries with more than 50% foreign equity in 2010. The list of subsidiaries comes from the data set of KIS Value.

The results of the R&D activities analysis of MNCs' foreign subsidiaries show that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of the local market, capability of the subsidiary itself and the resource(knowledge) exchange ability among MNCs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subsidiaries' R&D activities.

This is important in discovering the empirical factors of determining the level of subsidiary R&D activity through analyzing foreign subsidiaries in Korea.

The second empirical results of role typology show that the subsidiaries which are classified as Global Leaders (high level of MUSC & MP) are 9.8% and the Creator(high level of MUSC & low level of MP) is 0%. Foreign subsidiaries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ponge(low level of MUSC & high level of MP) are 71.5% and the Local User(low level of MUSC & MP) are 18.7% in Korea.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level of R&D activities among those four group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eveloping research on the role and typology of foreign MNCs' subsidiary is significant in further analyzing international business structures and future analysis.

As mentioned above,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Korean government, in trying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 foreign MNCs' subsidiaries, will be essential in supporting and improving the technology of research & laboratories. This needs to be increased to entice foreign MNCs' subsidiaries as well as foreign investment. Improving the technology in research & laboratories will create a spillover effect in terms of positive feedback.

The resulting determinants of local R&D activity level and the typology of role of foreign MNCs' subsidiary provides a rich set of possibilities for further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opment in terms of foreign MNCs' subsidiary research.

Ⅰ. 서 론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업의 설립과 성장은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지역적 한계와 요소 부족의 문제점은 기업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해외 시장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은 국제화 단계로 거듭나게 된다(Daniels, et al., 2007).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국제화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게 이전까지의 경제 환경과는 변화된 새로운 법칙과 질서를 요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국가 간 교역을 넘어선 새로운 기업 형태의 다국적기업을 탄생시켰다(Pavitt, 2002).

전통적인 관점의 해외직접투자이론에서는 기업 국제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의 위험성과 높은 진입장벽을 넘어서는 힘은 모두 다국적기업 본사가 가진 역량에 그 근간을 두고 있었다(Dunning, 1988). 하지만 이후 국제화 단계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국적기업 본사의 역량만이 아닌 자회사 소유의 역량 활용이 해외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Forsgren, 1989), 자회사의 산업 기술력이나 상무적 노하우는 다국적 기업 운영에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한다(Cantwell, 1991). 또한 본국 중심의 연구개발(이하 R&D) 활동과 동시에 병행되는 해외시장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흡수·활용하게 되었다(UNCTAD, 2005). 이러한 자회사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해외자회사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고, 결국 1990년 이후 다

국적기업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UNCTAD, 2010).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 연구에서 새롭게 변화된 기업 관점은 다국적기업을 다(多)중심 구조로 이해하고, 자회사가 다양한 사업 환경에서 기업 경영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본사 의존이 아닌 자회사 자율에 의한 역량 창조 기능과 다른 자회사나 본사로의 기술력 전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의 자회사로서 본사 파트너 역할로 인식되는 기업 구조로 그 시각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혁신의 중심에는 단순히 본사의 통제를 받던 전통적 관점의 자회사가 자율적 R&D 활동 능력을 가진 CoE(Centres of Excellence)와 같은 형태의 역할과 기능의 자회사로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Holm & Pedersen, 2000).

결국 글로벌화 된 기업 경향과 확대된 시장의 지역적 공간으로 인해 자회사 역할과 기능은 다국적기업이 가진 독립된 네트워크와 조직 관리에 변화를 가져왔다(Rogman & Verbkee, 2003). 그 변화의 흐름은 다국적기업 전략 속에서 자회사 활동과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경향 증가로 나타났다(Birkinshaw & Hood, 1998). 또한 자회사 개개의 특징적 요인을 바탕으로 자회사를 구분하려는 연구도 시도되었다(Bartlett & Ghoshal, 1986). 이러한 자회사들의 개념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고, 구조적 측면에서 세분화된 자회사 간 협력과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의 연구 경향으로 진화하게 되었다(Taggart, 1997).

또 다른 다국적기업 자회사 연구는 CoE와 같이 특화된 자회사 역할에 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Frost, Birkinshaw & Ensign, 2002). 이것은

중앙집권적이며 정태적인 이전까지의 자회사 R&D 활동 전략이 점차 기업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이용한 기능과 역할의 분산을 통해 동태적 자회사로의 전략적 변화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의 R&D 활동 지출액이 해외 자회사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와도 일치한다(Edwards, 2001).

다국적기업 R&D센터의 국제화 추이는 기술력 유출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R&D 활동의 국제화를 통한 해외 현지시장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과 이점을 얻게 된다. 또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과 함께 현지 시장에 대한 기술력 전파와 확산 같은 파급효과를 동반하기도 한다(Blomstrom & Sjoholm, 1999). 다국적기업 R&D센터의 기능을 갖춘 자회사 유치는 국가의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습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용 창출과 자본 유입이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2000년 이후 우리 정부도 해외다국적기업 자회사의 국내 유치와 R&D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 이전과 기술 도입은 물론 국내의 R&D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KOTRA, 2006; KOITA, 2007). 하지만 R&D 활동 기능을 갖춘 해외자회사의 국내 시장 유치는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선진 기술력 확산을 통한 국내 기술의 진보를 위해 필수적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은 기업의 R&D자료에 대한 대외비적 성격과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증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를 통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 시장에서의 해외 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국내자회사의 기능과 역

할에 따른 분류를 실시하고 각각의 유형이 갖는 자회사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국내에서 이루어질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고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R&D 활동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다국적 기업 R&D 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도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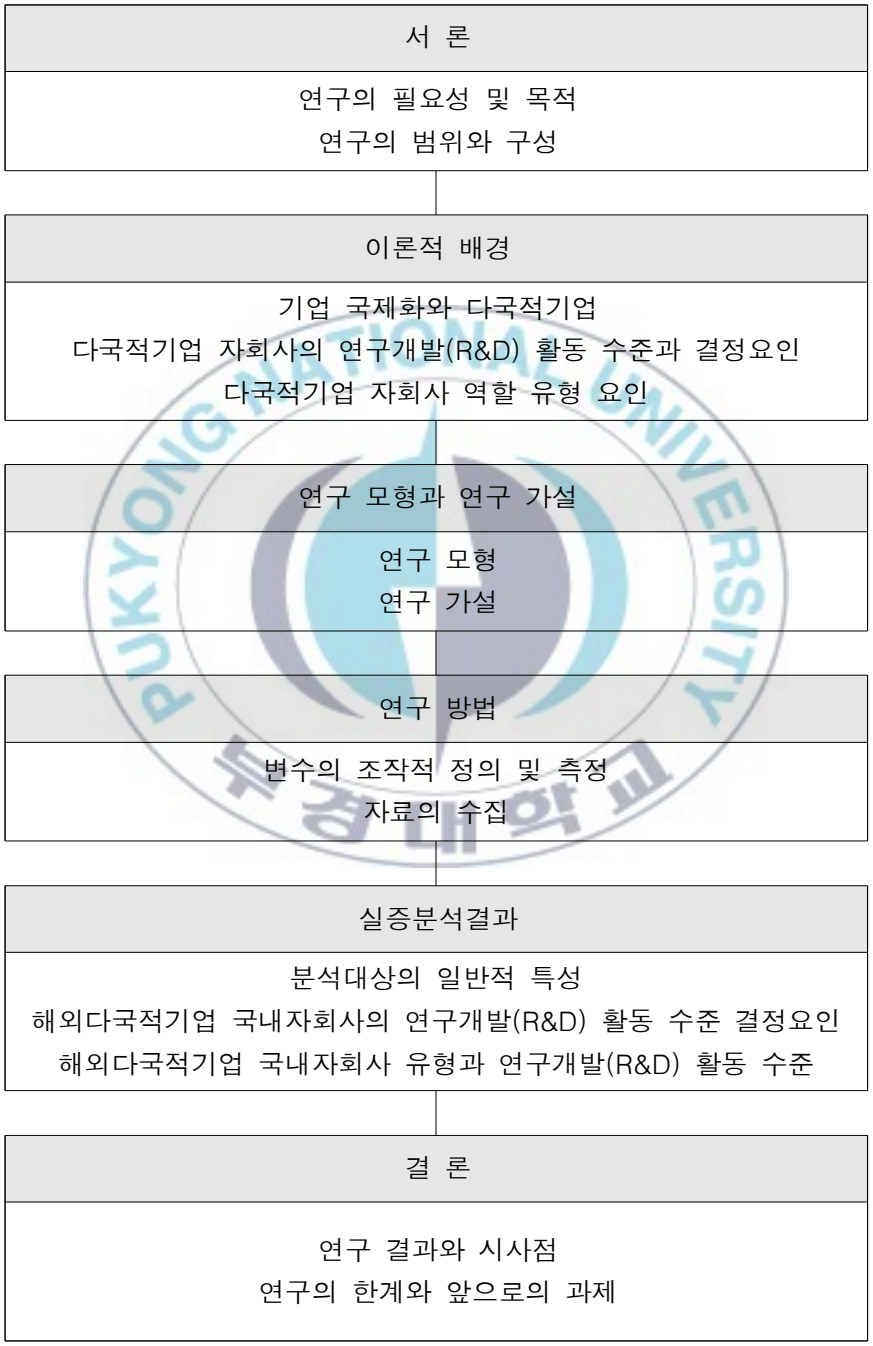
2 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본 연구는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자회사의 유형 구분에 관한 실증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는 한신평신용평가(주)의 Kis Value 자료 중 2010년 기업 결산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과 2차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한 해외다국적기업 연구의 흐름과 R&D 수준 및 자회사 유형 구분에 관한 개념적 연구 흐름과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을 제시하며, 각각의 변수에 대한 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과 함께 2차 자료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15.0 통계분석 패키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과 가설의 검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Ⅰ-1> 연구의 구성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세계시장의 국제화에 따른 기업 환경 변화가 기업의 국제화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타난 다국적기업의 탄생과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 흐름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업의 조직과 구조 및 전략이라는 다국적기업 중심의 관점이 점차 자회사 중심의 관점으로 변화하고 이동하는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한다.

다국적기업이 가진 네트워크 환경은 자회사가 가진 핵심 역량의 활용과 전파를 통해 기업 효율성을 가능케 하였고, 기업의 핵심 역량인 R&D 활동은 다국적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자회사가 가진 핵심 역량인 R&D 활동 수준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와 함께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R&D 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와 최근까지의 자회사 연구 경향과 관점의 변화를 알아보고자한다.

1절 기업 국제화와 다국적기업에 관한 연구

1. 시장 변화와 다국적기업의 탄생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종전의 국가 단위로 구성되었던 경제 상황

에서 한 국가에 있는 기업이 다른 국가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국경에 따른 시장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학자마다 정의는 상이할 수 있으나 기업이 국가 단위로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 세계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동일한 전략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세진, 2010). 결국 글로벌 시장은 이전까지의 세계 경제와는 변화된 새로운 시장 환경을 제시하였으며 변화된 새로운 법칙과 질서는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수요자 혹은 완전경쟁의 글로벌 시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여 단순한 국가 간 교역을 넘어선 새로운 기업 형태인 다국적기업(MNC)을 탄생시켰다(Pavitt, 2002). 다국적기업은 둘 이상의 국가에 현지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되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 활동을 하게 된다(Perlmutter, 1969)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탄생은 단순한 기업 국제화 단계를 넘어 해외시장의 요구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해외 이전과 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했다. 이후 다국적기업은 단순한 해외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본사의 중앙집권적 통제구조에 의한 해외 자회사의 범세계적 자원 배치와 조정 및 통합을 이끌게 되었다(Portet, 1985). 또한 Johanson & Vahlne(1977)의 연구에서는 변화된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초기 해외 시장 진출은 수출에서 판매법인 그리고 생산법인을 설립하여 순차적으로 시장에 진입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해외시장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 투자는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또한 순차적 진입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보

았다. 이것은 이전까지 국제화된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단순히 기업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요소의 교환과 이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방법이며 글로벌 전략이라 생각하던 이전까지의 추상적 이해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로 진화되었다.

2.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전략과 국제화 이론

현재까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 발전되었다. Perlmutter(1969)의 EPG모형을 이후 Yoram, Douglas & Perlmutter(1973)에 의해 이전의 연구 모형을 보완하여 국제마케팅전략에 적용한 EPRG모형이 다국적기업 측면의 최초 전략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EPRG모형은 지역 시장의 특성에 보다 효율적인 경영과 조직구조를 갖추기 위해 국제적 기업 조직이 지역적으로 본국중심(Ethnocentric)의 조직과 전략을 사용하는지 혹은 다양하고 독립적인 현지 국가의 시장과 자회사에 중심을 두는 다(多)국가중심(Polycentric) 전략을 사용하여 경영활동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역중심(Regiocentric)의 전략은 글로벌 시장 통합의 이전 단계로 몇 개 혹은 여러 국가를 하나의 통합된 지역적 시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자회사 유형과 가장 흡사한 세계 시장을 지역적 구분 없이 통합된 하나의 국제적 시장으로 정의하고 기업네트워크를 통한 자회사 간 높은 연관성을 가진 기업 전략을 세계중심(Geocentric)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화된 시장에 기업의 영역을 확대 해석한 연구 이론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다국적기업 경영 전략에 대한 연구 흐름은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한 후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 구매에 맞게 다양화시키고 시장차별화를 통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Johanson & Vahlne, 1977). 또한 Vernon(1979)의 연구에서는 핵심기술과 역량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먼저 현지시장에 대한 소비자 구매성향과 정보를 얻기 위해 관찰자적 역할을 담당할 채널로 해외시장 자회사를 설치한다고 보는 견해로 이러한 연구 역시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전략 차원의 연구 단계와 같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연구 경향은 국내시장에 안주하던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확대된 사업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국제적 기업으로 진화하는 기업 국제화 단계에 대한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 본사나 본사가 위치한 모국에서의 기업 역량에 대한 본사 수준의 활용 전략이나 본사와 자회사간 집중되어있는 기능과 조직구조에 대한 연구로 변화되었다(White & Poynter 1984). 이러한 연구는 다국적기업 조직 구조와 역할에 대한 조정과 협력에 대한 구조적 전략 관점의 연구 흐름으로 볼 수 있다(Gates & Egelhoff, 1986). 또한 전략적 관점의 연구는 다국적기업 본사를 바탕으로 여러 형태의 분석방법이 논의되었고, 세계 시장에서 기업이 가진 요소 투입과 현지 시장에서의 요소 활용에 대한 효과적 방안과 결과 도출에 관한 체계적 연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와 이론의 정립은 다국적기업에 관한 연구의 체계화를 위한 토대로 작용했고, 이후 많은 다국적기업 관련 이론과 연구는 국제화 전략 이론 연구의 토대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Dunning(1980)의 절충이론은 다국적기업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이론으로 OLI이론으로 불리며 현지화 요소 결정에 관한 연구의 근간이 되었다. 이것은 기업의 국제화 단계에서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기업 우위요소, 입지 우위요소, 내부화 우위요소 등의 세 가지 우위요소의 합에 의해 기업 해외직접투자 방식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Porter(1985)의 경쟁우위전략과 이후의 구체화된 글로벌기업 경쟁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글로벌화에 대한 기업 통합과 현지화 그리고 배치와 조정에 관한 요소를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 활동의 이론적 체계는 구체화되었다. 더욱이 그가 주장한 글로벌 전략은 세계 여러 지역 직접투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과 기업의 범세계적 활동을 본사에서 강력하게 통제함으로서 그 기능과 역량이 지역적으로 분산 배치되나 본사와 자회사의 연결과 조정의 정도가 높은 수준의 다국적기업이라는 결과로 설명되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후 Bartlett & Ghoshal(1989)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개념적 연구에서 초국적기업이라는 연구 개념으로 이어졌다. 결국 Bartlett & Ghoshal(1989)은 자신의 연구에서 범세계적 통합성과 대응성 요인을 기준으로 다국적기업을 다국적 조직, 글로벌 조직, 국제적 조직, 초국적 조직과 같이 4가지 유형과 전략으로 구분했다. 다국적 대응전략은 국가 간 차이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국제화 전략을 채택한 기업은 전 세계적 혁신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3.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역할과 기능

다국적기업 전략과 구조에 초점을 맞춘 다국적기업의 전략과 국제화에 관한 이론과 연구는 이후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가진 다양한 역할과 기능으로 그 연구의 초점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다국적기업 본사와 자회사간의 관계에서 자회사 효용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사 혹은 다른 자회사 역량을 강화시키고 최종적으로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회

사의 목적이다. 이것은 다국적기업 연구 초기에 간과되어 온 자회사의 자율성과 다양한 전략적 역량을 중심으로 기능적 효용성과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은 다국적기업 내에서 자회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역할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해외 자회사의 전략적 결정요소에 대한 연구로의 관점 변화가 나타났다.

그 대표적 연구인 Bartlett & Ghoshal(1986)의 연구는 다국적 기업조직이 획일적인 통제시스템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각 시장 특성과 개별 자회사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보았다. 자회사의 성격을 현지 시장 환경의 전략적 중요성과 현지 자회사 역량에 따라 역할을 구분하고 다국적기업 내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각 자회사마다 처해있는 시장 환경과 보유한 역량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다국적기업들이 외부환경 요인과 조직 내부 환경 요인을 반영해 해외 자회사 역할과 책임을 차별화하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서 기업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국적기업과 자회사에 관한 역할과 기능의 유형 구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지만, 그 연구 흐름과 내용은 이전의 연구 내용을 수정 보완하거나 용어의 사용을 변형한 것으로 대략적 맥락의 중심은 Prahalad & Doz(1987)와 Bartlett & Ghoshal(1989)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후 Roth & Morrison(1990)의 선행연구와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자회사 역할과 다국적기업 글로벌 통합 전략 및 자회사에 관한 연구를 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초기

기업 내 조직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점차 시장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전략과 관리로 진화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연구 경향의 변화는 다국적기업 본사의 국가보다 현지 시장에 대한 반응과 자율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을 찾고 모색하는 연구로 바뀌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역할과 기능이 다변화되고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Birkinshaw & Morrison(1995)의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국적기업과 자회사를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구분 기준인 전략적 자율성과 기능적 통제라는 요인을 활용한 S-F모형 연구를 실시했다. 자회사 유형은 자회사가 특화된 역량을 소유한 특화된 제공자(Specialized Contributor) 유형의 자회사와 현지 시장에서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지 실행자(Local Implementer) 유형의 자회사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역량을 가진 세계적 위임(World Mandate) 유형의 자회사로 구분된다.

Taggart(1997)는 I-L 모형과 A-P 모형을 이용한 두 편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선 I-L 모형은 I-R 모형과는 구조적으로는 같으나 대응성 변수 대신 현지화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I-R 모형의 유효성을 검정하고 모형을 확장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Jarillo & Martinez(1990)의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대응성과 통합의 정도가 낮은 휴지적(Quiescent) 유형의 자회사에 대해 규명하였다. 이들 기업들의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수출비중, 생산유형, 기술개발 공헌도, 마케팅 활동의 연계성 등을 활용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의 차이라기보다 영국과 스페인이라는 시장의 시장가치사슬 활동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또 다른 연구에서 자회사 전략을 위한 연구모형은 이전의 연구(1997)와 Ghoshal & Bartlett(1989)의 연구에 이용되었던 4분위 모형을 이용하여 자율성과 절차

의 공정성을 활용하는 A-P 모형으로 제시했다. 높은 자율성과 절차 공정성을 가진 자회사인 파트너 유형의 자회사는 높은 수준의 조정을 보였고 자매 자회사와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협력 관계를 보였다. 샘플 분포에서는 낮은 수준의 자회사 비율을 보이지만 구매와 기술력은 글로벌 확산 전략을 이용한 자회사 형태로 제품과 시장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수준도 가장 높은 자회사 형태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격적 유형의 자회사는 높은 자율성과 낮은 절차 공정성을 보유한 유형으로 전체 샘플 중 두 번째 비율로 조사되었고 자회사 수준의 구매만 나타났다. 협력적 유형의 자회사는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실제 본사와의 조정 정도가 가장 높은 자회사로서 다른 자회사로의 기술과 생산 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높은 수준의 통합으로 부분적인 R&D 활동이 나타나지만 시장 지배력은 가장 높은 수준을 갖는 자회사 형태이다. 종속적 유형의 자회사는 자율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부가가치와 시장 규모가 가장 낮은 자회사 유형으로 조사 대상 자회사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국제 전략 혹은 다국적 기업 유형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느 특정한 유형의 전략이 다른 유형보다 반드시 우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이 글로벌 전략을 추구할 것인가 또는 국가별전략을 추구할 것인가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 등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여러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과 여러 학자들의 이론에서 알 수 있듯 많은 기업이 국제화되고 산업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기업들도 점차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시장 공략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회사의 역할과 형태 분류는 다국적기업 자원 활용과 활동을 통해 기업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경영전략 개발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대한 다음 세대 연구의 기초와 토대가 되어 1990년대 이후 다수 연구자들 연구에 활용되었다.

4.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핵심 역량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은 자신의 연구 관점에서 자회사를 구분하고 자회사가 가진 핵심 역량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 자회사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현지 자회사의 사업이나 기능의 한계성 혹은 핵심 자회사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에서 다국적 기업 내 자매 자회사의 이익과 사업 효율화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 자회사의 전략적 역할에 관심을 가진 학자로 Bartlett & Ghoshal(1989)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의 학자들은 자회사의 자율권에 관한 개념과 실증 연구가 나타나가 시작했다(Etemad & Dulude, 1986). 이러한 자회사 핵심 역량 중 자회사의 자율권은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최상의 방법인 동시에 상대적으로 다국적기업과 다른 지역의 독립된 자회사 자율 결정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 왜냐하면 모든 전략적 결정을 본사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국적기업 내 통합된 메커니즘과 독립적 관계에서 본사에 의해 기본적인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점차 다국적기업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UoE(Unit of Excellence) 형태의 자회사나 자회사의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 본사나 다른 지역의 자회사에 자신이 가진 역량을 활용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효과적 이윤창출에 도움을 주는 CoE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 독립적인 R&D 능력과 사업 영역을 갖춘 자회사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

과로 자회사 현지 시장의 이익 추구를 넘어서는 자회사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Forsgren, Holm & Johanson, 1995). 실례로 1960년대 많은 생산과 무역 활동과 같은 활발한 기업 활동을 전개하던 다국적기업이 전반적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생산시설의 대부분을 매각한 이후 다국적기업에서 가장 활발한 경영 활동을 지속하던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자회사의 기능과 역량 강화에 힘입어 결국 코펜하겐에 위치했던 본사가 싱가포르 자회사로 본사 기능을 이전하고 새로운 기업의 중심이 된 사례가 있다. 다국적기업에서 CoE는 드문 현상이 아니며 CoE는 다국적기업의 새로운 시장과 기술 개발과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으로의 재탄생과 투자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형의 새로운 자회사이다.

이러한 자회사 핵심 역량에 관한 연구에서 Holm & Pedersen(2000)은 다국적기업 자회사를 자회사 역량과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다.

2절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연구개발(R&D) 활동 수준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연구개발(R&D) 활동 요인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R&D 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과거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김완민과 최순권, 2006). 이 시기에는 해외자회사들이 독립적인 R&D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를 현지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개선 활동에 주로 R&D 활동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Rugman & Verbeke(2003)은 기업 내부화 이론의 관점에서

해외자회사 R&D 활동은 독자적인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본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현지 시장 특성에 맞도록 적응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자회사들의 현지 시장에서의 R&D 활동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또 하나의 이유는 R&D 활동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해외자회사들의 R&D관련 활동이 적었을 뿐더러, 이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주요 기밀사항 중의 하나로 분류되어 관련 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해외자회사들이 현지 시장에서 수행하는 R&D 활동의 폭과 깊이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Dunning, 1998; Holm & Pedersen, 2000). 자원준거관점에서 보면,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경영 자원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다국적기업은 해외자회사를 통한 글로벌 현지 시장에서의 R&D 활동을 통해 본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글로벌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자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Langlois, 1992; Madhok, 1997).

Holm & Pedersen(2000)은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 능력이나 생산 능력을 갖춘 해외자회사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회사들이 다국적기업 전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내부에 확산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R&D 활동 수행의 필요성은 기업 자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 기업

들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기업 유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R&D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또한 현지 시장 진출 시 현지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현지 파트너들이 현지에서의 R&D 활동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Shan & Song,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들의 R&D 관련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해외자회사가 속해 있는 시장 환경 특성과 관련된 환경(Environmental Related) 요인과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관련된 기업(MNC Related)요인으로 나뉘고 있다(Meyer & Mizushima, 1989; Cantwell, 1992; Patel & Vega, 1999; Choi & Eriksson, 2001; Davis & Meyer, 2004; 김완민과 최순권, 2006; Reddy, 2010). 본 연구에서도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환경관련 요인으로는 현지 시장 산업특성과 기술수준을, 다국적기업관련 요인으로는 해외자회사 역량, 모기업 역량, 그리고 다국적기업 내 자원 및 지식 공유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R&D 활동의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그 구분을 조금씩 달리한다. Zedtwitz & Gassmann(2002)의 연구에서는 연구(Research)활동과 개발(Development)활동을 분리하여 연구하였다. 즉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연구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생산 활동에 적용 활용하는 활동을 개발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Sadowski & Sadowski(2006)의 연구에서는 연구 활동을 창조적 혁신 활동으로 개발 활동을 모방적 혁신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많

은 연구자들(김기국 2003; 장윤종 외 2007; 최순권 2008)의 R&D 활동 관련 연구들에서 연구 활동과 개발 활동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해외 자회사의 R&D 활동은 연구와 개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술 간 복잡성과 상호연관성이 증대되어 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의 R&D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요인으로는 성과요인과 규모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요인은 시장점유율, 당기순이익, R&D 활동 특허건수 등으로 단순 R&D 활동 수준을 벗어나 기업의 종합적인 성과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으로 종합적인 성과요인이 아닌 직접적으로 R&D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2. 현지 환경 특성 요인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입지 유형에 관한 Meyer & Mizushima(1989)의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입지할 위치는 현지 공장이나 생산시설과의 접근성에 중점을 둔 입지우위 요소측면의 선택이 중요하며 이러한 요인은 Porter(1985)의 경쟁우위 측면의 연구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입지 측면은 현지 시장 자원의 활용과 접근성을 높이며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Davis & Meyer(2004)의 연구에서 기업은 비용 감소를 위한 입지 우위요소를 기대하게 된다는 비용 측면의 입지우위를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경제국에 다국적기업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기술력을 대체할 연구 인력과 연구기관의 존재는 다국적기업에게 상당한 매력을 갖게 한다. 또한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키는 국가나 지역

에는 기업의 자원과 기술적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에 상당한 질적 성장과 함께 양적 팽창을 기대하게 한다.

Christian & Sierra(2002)는 Patel & Vega(1999)이 주장한 외국인투자기업 입지결정 요인을 투자유치국의 시장규모, 본국과 투자유치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산업수준 그리고 성장가능성과 본국의 원가우위 등을 이용한 다국적기업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입지 전략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했다. 그들은 현지국 기술 활동의 강·약의 정도에 따른 분류와 함께 다국적기업이 가진 기술적 활동 수준의 강도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전략과 이에 따른 전략적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 이러한 4가지 전략은 해외자회사를 통한 기술 추구(Technology-seeking)전략과 현지 적응(Home-base-exploiting)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본사 지원(Home-base-augmenting)전략과 시장 추구(Market seeking)전략 등 4가지의 기술적 강도에 따른 전략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연구자들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이 해외자회사를 통한 기술 추구 전략과 같이 본사가 가지지 못한 기술적 한계를 현지시장의 자원과 기술력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자회사를 통해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해외직접투자로 다국적기업 본국의 취약한 기술과 정보를 해외 자회사의 R&D 활동을 통해 보완하고 충족시킬 수 있다는 관점의 연구로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는 본사가 가지지 못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확보하기 위한 해외 시장의 훌륭한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포함한 해외 R&D 활동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는 김완민과 최순권(2006)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상당한 인센티브적인 혜택을 해외다국적기업에게 부여하며 연구개발 센터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것은 다

국적기업의 선진화된 기술이전과 함께 해외자본을 통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은 시대적 변화에 맞는 시장 적응을 위해 해외 현지 시장에 많은 자회사의 설립과 인수를 통한 국제화에 적응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화는 해외 시자에서의 생산, 판매, 마케팅 활동 등의 지원을 위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글로벌 R&D 활동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동기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해외 R&D 활동 유형은 R&D 활동 글로벌화 동기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Reddy(2010)는 해외 R&D 활동에 대한 연구 분석에서 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기본적 동기의 원인과 기업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서 시장관련 동기에 의해 초기 R&D 활동 조직은 다국적기업 모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해외의 자회사에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기업을 TTU(Technology Transfer Units)라 정의했다. 또한 해외 시장의 현지국 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시장을 위한 기술과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을 ITU(Indigenous Technology Units)형태의 자회사로 구분했다. 그리고 일정 지역이나 국가의 시장을 위한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을 RTU(Regional Technology Units) 유형의 자회사로 구분했다. 세계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제품과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형태의 기업을 GTU(Global Technology Units)로 분류했으며 기업이 가진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기업 유형을 CTU(Corporate Technology Units)로 구분했다. 이러한 기업 유형구분에서 시장의 범위와 위치에 따라 지역적으로 구별되는 R&D 활동 조직과 관련된 동기를 시장관련 동기(Market Related Motive)로 기술적인 부분

과 관련된 동기를 기술관련 동기(Technology Related Motive)로 마지막 비용과 관련된 동기를 비용관련 동기(Cost Related Motive)로 구분했다.

Cantwell(1992)의 연구에서 R&D 활동 입지 선택에 관한 기술적 요인이 시장 범위와 접근성에 중점을 둔 시장 요인에 비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며 Reddy(2010)의 연구에서도 R&D 활동 입지 선정에 관한 동기 중 기술관련 요인의 활동이 비용관련 요인에 비해 그 중요도가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해외시장의 과학기술의 자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R&D 활동기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비용 감소를 위해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현재도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노력 중이며, 기업 혁신의 향상과 새로운 기술 탄생에 대한 기본 목적을 손상시키지 않은 범위에서 꾸준한 혁신은 계속된다. 새로운 신기술의 탄생과 혁신적 기업 능력은 산업화된 다국적기업 모기업의 능력이 해외자회사의 R&D 활동 능력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결국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R&D 활동 입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들은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니며 각 요인들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 R&D 활동 조직의 해외입지 선택은 특정한 한 가지 요인보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3. 기업 특성 요인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한 R&D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 따른 구분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자회사의 활용 관점과

기업에 따라 여러 가지의 관점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진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본사나 본사가 위치한 모국에서 얻지 못하는 자원과 기술 및 정보는 해외 시장에서의 해외자회사의 꾸준한 R&D 활동 사업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 자회사의 R&D 활동은 다국적기업 모기업이 소유한 글로벌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해외 현지에서의 R&D 활동의 시작도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을 진입하고자 하는 현지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본사의 R&D 활동 역량이 높지 않고서는 해외 자회사의 R&D 활동 수행이 쉽지 않다(Belderbos, 2003). 또한 기업의 사업수준 결정에 있어 기업이 가진 사업 경험과 시장경쟁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사업 기능의 활동 수준결정을 결정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Johanson & Vahlne, 1977).

이러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은 시장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과 시장 상황에 맞는 선택적 정보의 확보를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기업이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명확한 이해가 부족할 때 현지 시장에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 수행을 주저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기업의 사업경험이 풍부할수록 그 기업의 R&D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한 시장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순권(2008)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액과 자본금 규모를 사용하고 있다. 매출액은 그 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달성하고 있는 전체 수익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 규모를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정 수준의 사업 규모를 나타내는 매

출액을 가진 기업일 경우 R&D 활동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규모와 달리 기업의 규모인 자본금 규모 역시 기업의 시설 투자와 관련된 투자비용을 대변한다. 매출액 규모가 기업이 발생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다양한 변동성 경비를 포함하는 반면 자본금 규모는 순수하게 그 기업이 현지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자회사의 R&D 활동은 직접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비가 아니므로 기업의 자본금 규모는 현지 시장에서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다국적기업 내 R&D 활동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한 연구영역이나 독자적인 기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더 활발한 R&D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 창출되는 지식과 역량은 대부분 암묵적 성격의 무형적 자산으로 네트워크 구성원 간에 밀접하고 빈번한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즉 모기업 및 관련 자회사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긴밀한 상호 지원과 협력을 구축하게 된다. 물론 자회사는 다국적기업의 다른 내부 네트워크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모기업만큼의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이응석, 2007).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지식 이전이 해외 파견자와 같은 인적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이후의 발전적 지식전환으로 연결되어 자회사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본사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최순권, 2007). 이러한 자원의 공유와 이전의 대상은 크게 부품, 반제품 또는 생산 설비와 같은 물리적 형태로 이전되는 자원과 인적자원이나 조직에 체화된 기술 및 고유의 관리기법과 같은 무형의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모방이 어려운 자원은 무형의 자원이며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무형자원은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주요원천으로 작용한다(정해조 & 김창완, 2001).

3 절 다국적기업 자회사 역할 유형 요인에 관한 연구

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

이전까지의 다국적기업 연구는 본사 수준 혹은 본사와 자회사간의 집중과 형식 그리고 조정과 협력 등에 관련한 전략적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Gates & Egelhoff, 1986). 다국적기업 본사를 바탕으로 여러 분석 방법이 논의 되었고, 이것은 국제 시장에서 어떠한 힘을 이용하고 투입하여야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지에 관한 연구였다. 그러나 Bartlett & Ghoshal(1986)의 연구는 다국적 기업조직이 획일적인 통제시스템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각 시장 특성과 개별적 자회사의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네트워크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자회사의 성격을 현지시장 환경의 전략적 중요성과 현지 자회사 역량에 따라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고 다국적기업 내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각 자회사가 위치한 현지 시장 환경과 보유한 역량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다국적기업들이 외부환경 요인과 조직 내부 환경 요인을 반영해 해외 자회사 역할과 책임을 차별화하고,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서 기업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서 다국적기업 자회사를 전략적 리더(Strategic Leader), 기여자(Contributor), 실행자(Implementer), 블랙홀(Black Hole)로 구분했다.

이후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Bartlett & Ghoshal(1986) 연구의 연장선에서

혹은 변형된 자회사의 역할 구분을 통해 자회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 자회사 연구는 Holm & Pedersen(2000)의 연구에서 자회사가 가진 핵심 역량의 수준과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을 구분했다. 그의 연구에서 다국적기업 자회사 유형의 기준은 자회사 역량(Subsidiary Competence)과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MNC Use of Subsidiary Competence)이라는 관점에서 구분된다. 첫 번째로 CoE 유형의 자회사는 자신의 역량과 자회사 자신이 가진 역량을 다국적기업 내 다른 자회사나 본사의 활용이라는 두 기준이 모두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CoE적 자회사는 그 기능적 측면에서 꾸준한 발전을 지속해야 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두 번째 Unit of Excellence의 자회사 유형은 자회사 자신의 역량은 높으나 자회사가 지닌 높은 역량을 다국적 기업 내 다른 자매 자회사와 본사 등 기업 전반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으로 다국적 기업 내 다른 자회사로 그 역량을 연결하는 리더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회사 유형이다. 세 번째 자회사로 그들만의 독특한 사업 영역이나 기능이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기업 내 다른 영역으로의 확대 기능도 존재하지 않는 Units with Local Threshold Competence라는 자회사 유형으로 현지시장의 한계적인 역량과 시장성을 가진 자회사 규정된다. 명확한 역량을 가지지 못했고 단지 사업적 영역을 현지시장에 국한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회사들의 사업 수준은 아직 다국적기업에서 넓은 수준으로 확장되지 않았다. 최근 미개발 시장이나 국가에서 다른 자회사의 전문지식과 자원에 의존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자신만의 사업영역이나 역량은 가지지 못하지만 다국적 기업의 중심적 위치를 가지

는 자회사유형이다. 이러한 자회사는 최근 확실한 국가나 시장에 다국적기업 본사와 결합되어 설립 운영되어 다국적기업 내에서 시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회사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이나 사업 자원 개발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자회사는 간혹 과거에 CoE와 같은 독특한 역량과 지위는 잃어버렸지만 시장과 기업 내 위치에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자신만의 사업영역보다는 다른 자원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새로운 자원개발과 다국적 기업 내에서 강력한 힘을 주는 위치가 아니거나 CoE가 되기 위한 사업영역 혹은 역량 개발이 없다면 더 이상 CoE나 중요한 핵심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시장 혹은 현지국가에 국한된 기능과 사업을 진행하는 한계성을 보이게 될 수 있다.

Enright & Subramanian(2007)은 기존 다국적기업 자회사 분류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회사 스스로의 검토보다 전략적 형태에 의해 분류되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는 제한적 결과의 집합으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회사 구분의 관점을 기업 능력의 창조 유무와 활용 그리고 자회사가 가진 영향력인 지역 규모와 생산 규모의 4가지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자회사 수준에서 활동 규모와 시장의 전략적 선택에 기반을 두어 이전 자회사에 관한 개념과 조직을 재분류하고 이용하였으며 국내 자회사 이하의 개념은 나타내지 않았다. 첫 번째 분류는 자회사가 가진 역량 창조(Capability Creation)의 관점에서 자회사를 1차 구분하였고 이후 역량 활용(Capability Utilization)이라는 관점에서 재분류했다. 이렇게 분류된 자회사 유형은 높은 역량 창조 기능을 가지고 활용 능력도 뛰어난 자회사의 형태를 선도적 자회사(Leader) 유형으로 높은 창조 능력은 가졌으나 활용의 관점에서 낮은 자회사 유형을 혁신적 자회사(Innovator)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역량 창

조적 능력이 낮은 유형의 자회사 중 활용이 뛰어난 자회사 유형을 실행자적 자회사(Implementer)로 낮은 활용의 관점을 가지는 자회사 유형을 방관적 자회사(Observer)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 분류의 단계에서는 역량의 활용 능력에 따라 분류된 자회사의 유형을 다시 제품의 생산 범위에 따라 구분하고 지역적 범위에 의해 마지막 단계의 자회사 유형을 분류하였다. 마지막 구분 단계에서 지역적 범위의 관점에서 분류된 자회사 각각의 유형은 글로벌, 지역적, 현지 자회사 형태로 분류했다. 이렇게 분류된 자회사는 이후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관한 연구에서 자회사 분류와 형태 규정에 있어 이정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2.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역량 활용 요인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FDI)이론의 관점에서 기업 국제화는 본사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현지시장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게 하였다. 하지만 현대 해외직접투자는 단순히 모기업이나 본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모기업이나 본사가 갖지 못한 현지시장의 정보와 기술력 그리고 사업 네트워크 등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진입과 기업 차원의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단순히 종속된 하나의 기업 단위로 인식하던 시기에서 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우선 다국적기업이 새로운 현지 시장진입과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현지시장 정보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러한 정보 수집과 현지화 구축을 위해서 자회사가 가진 역량의 활용과 이용은 시장진입을 위한 높은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Furu(2000)의 연구는 다

국적기업 자회사의 R&D 활동특성에 관한 연구로 4개국 333개의 자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시장 자회사가 현지화의 깊이가 높은 경우 현지 시장에서 특화된 핵심 역량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다시 다국적 기업 본사에서 필요한 정보와 맞아떨어질 때 기업 간 통합은 높은 수준을 갖게 된다. 또한 Fratocchi & Lorenzoni(2000)는 이탈리아 기업의 사례를 통한 자회사 기능의 통합과 이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특히 기업이 가지지 못한 특정 기능 중 R&D 활동능력을 얻는 최상의 방법으로 기업 인수합병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보았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이 갖지 못한 특수한 기능과 역량을 인수 합병된 기업과의 통합과정에서 다국적기업 네트워크 속으로 전파시키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 자회사로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 자회사가 가진 기능과 역할 중 자회사가 가진 역량의 활용은 앞선 이론적 배경과 같이 1990년대 개발된 자원기반이론과 네트워크 모델 그리고 이후의 핵심 역량이론의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자회사가 현지 시장에서 가진 사업능력과 기술적 영역에서의 역량을 습득하고 활용하고 또한 자회사 역량을 다른 지역의 자회사로 확산 이전시키게 된다. Holm & Sharma(2000)의 연구에서 자회사가 가진 역량은 다국적기업의 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자회사가 가진 높은 수준의 특정 역량이나 기술은 다른 지역의 자회사에 기능과 역량을 전파 학습시킴으로써 다른 자회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었다. 기업 성과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은 자회사의 특정 기술과 역량이 가진 특성으로 상당한 암묵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암묵적 지식은 다국적기업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 활동을 통해 그 영향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0년 이후 자회사 역할 구분에서

다국적기업이나 다른 지역 자회사가 특정 자회사 역량의 활용은 그 자회사 위치나 역할 결정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3.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시장 지배력 요인

시장지배에 대한 정의는 경쟁자들, 고객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과 상당한 정도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한 사업자에게 허용함으로써 그 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유효경쟁을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적 힘의 보유로 정의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시장지배력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 용어는 아니며 그것은 정도의 문제이다(이남순, 2000). 다각화된 기업의 사업들 사이에 발생하는 자본의 내부 거래는 사업이 가지는 시장지배력을 다른 사업들도 가질 수 있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의 매력도와 그 산업 내 기업의 경쟁적인 위치를 확인하여 각기 다른 기업 혹은 자회사의 전략사업 단위와 비교할 수 있고 결국 기업은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사업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Barney & Hester, 2006). 그리고 시장지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은 기업이 진입한 시장에서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하나의 좌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개별 기업의 수익률과 매출액이 다른 개별 기업의 수익률과 매출액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많다(장세진, 2010).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R&D 활동 사업 수준 결정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에 기인한 것으로 꾸준한 해외 자회사 R&D 활동 사업에 그 기반을 둔다. 그러므로 해외 자회사의 R&D 활동은 모기업 국제경쟁력의 수준에 영향을 받고, 해외 R&D 활동은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를 현

지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사의 R&D 활동 역량이 높지 않고서는 해외 자회사의 R&D 활동 수행이 쉽지 않다(Belderbos, 2003). 기업의 사업수준 결정에 있어서도 기업이 가진 사업경험과 시장지배력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사업 기능의 정도와 다양한 국제적 사업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한다(Johanson & Vahlne, 1977).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Ⅲ.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본 장은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현지환경요인과 기업요인이 R&D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으로 STEP Ⅰ을 설정하였다. 또한 STEP Ⅱ에서는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 정도와 국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회사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1절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해외다국적기업 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과 자회사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 모형을 <그림 Ⅲ-1>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모형의 STEP Ⅰ에서는 해외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의 시장특성과 기술특성인 현지환경요인과 자회사특성과 모기업특성 그리고 자원공유특성인 기업요인이 R&D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STEP Ⅱ에서는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 정도와 국내 시장 지배력에 따라 자회사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자회사간 유형에 R&D 활동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STEP Ⅰ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는 Patel & Vega(1999), Christian & Sierra(2002), Davis & Meyer(2004), Reddy(2010), 김완민 외(2006)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인 현지환경요인의 특성인 현지시장 산업 환경 특성, 기술 환경 특성을 설정했고, 다국적기업관련 요인으로 해외자회사 역량, 모기업 역량, 그리고 모기업과 자회사 간 자원 및 지식 공유 역량으로 설정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한 정부지원의 수준은 통제요인으로 설정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Ⅲ-1> 연구 모형

STEP Ⅱ에서는 Bartlett & Ghoshal(1986 & 1989), Forsgren, Holm & Johanson(1994), Furu(2000), Holm & Pedersen(2000), Enright &

Subramanian(2007)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회사 유형 구분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유형 간 R&D 활동 수준 차이의 존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절 연구 가설

STEP 1

본 연구에서는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Patel & Vega(1999), Christian & Sierra(2002), Davis & Meyer(2004), Reddy(2010), 김완민 외(2006) 등의 연구를 이용하여 R&D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현지환경요인의 특성인 현지시장 산업 환경 특성, 기술 환경 특성을 설정했다. 또한 다국적기업관련 요인으로 해외자회사 역량, 모기업 역량, 그리고 모기업과 자회사 간 자원 및 지식 공유 역량으로 설정했다.

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결정 요인

1) 현지 시장 환경 특성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다국적기업 해외 R&D 활동 입지선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첫째 시장관계 측면(시장의 규모, 접근성, 중요도)의 입지 선

택 동기 요인 둘째 기술관계 측면(해외 S&T 자원)의 입지 선택 동기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Reddy, 2010). 다국적기업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장 적응을 위해 해외 현지 시장에 많은 자회사의 설립과 인수를 통한 국제화에 적응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판매, 마케팅의 글로벌화에서 생산의 글로벌화를 거쳐, R&D 활동의 글로벌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Gerybadze & Reger(1999)의 연구에서는 더 나은 품질의 부품 공급업자들이 많을수록 글로벌 공급 사슬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글로벌 공급자들이 있는 해외 현지에서의 R&D 활동을 통해 시간, 품질 관리, 유연성 그리고 비용 우위의 이점들을 추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해외자회사 R&D 활동 수준에 관한 국내의 연구(김완민과 최순권, 2006)에서는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경쟁원천 개발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다양성 요구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시장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R&D 활동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산업 내 기업들의 글로벌화와 경쟁강도가 증가할수록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R&D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지 시장 수요적 환경특성의 구체적 요인에 관한 Ove, Hakanson, & Sjöolander(1992)의 연구에서는 시장의 접근성, 규모, 다양성, 중요도, 성장가능성 등 해외 시장 수요와 관련된 요인들이 R&D 활동 조직의 현지시장 설립요인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Christian & Sierra(2002)는 Patel & Vega(1999)의 연구에서 주장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결정 요인을 투자유치국의 시장규모, 본국과 투자유치국의 과학기술 수준과 산업

수준 그리고 성장가능성, 본국의 원가우위 등을 이용한 연구와 자신의 연구를 접목시켜 R&D 활동이 다국적기업 해외직접투자(FDI)를 위한 입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R&D 활동 수준과 관련된 또 다른 접근법에서는 해외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은 저비용 요소 측면과 자회사의 전략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Davis & Meyer, 2004). 우선 저비용 측면에서는 비용우위를 위한 입지선정과 새로운 신흥시장이나 현지 생산시설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해외자회사에서 R&D 활동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즉, 우수한 자원 공급자(Gerybadze & Reger, 1999)와 높은 산업수준(Patel & Vega, 1999) 그리고 산업의 글로벌화(Zedtwitz & Gassmann, 2002; 김완민과 최순권, 2006)가 증진되어 있을수록 해외자회사는 R&D 활동 수준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시장 경쟁강도(Davis & Meyer, 2004)와 수요의 다양성(Ove, Hakanson, & Sjöolander, 1992) 등은 즉각적인 소비자의 요구와 반응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상품과 기술 개발을 위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현지 시장 내 관련 산업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와 이러한 수요의 다양성, 그리고 성장성 등이 우수할수록, 다국적기업은 그 현지 시장 내에서 더욱 활발한 R&D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1. 현지 시장 내 관련 산업 환경이 다국적기업에게 우호적일수록, 현지 자회사의 R&D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2) 현지 기술 환경 특성

199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 R&D 활동 조직은 점차 선진국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다국적기업은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자회사의 시스템을 혁신시키고 기술과 지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해외 현지시장 자회사가 R&D 활동을 한 결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다국적기업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Kuemmerle(1999)의 본사 기반 확장(Home-Based Augmenting)전략과 Dunning & Narula(2004)의 전략적 자산 획득을 위한 R&D(Strategic Asset-Seeking R&D)전략 모두 R&D 활동에 관한 해외직접투자(FDI)전략으로, 기술우위 요소를 가진 모기업과 해외 현지 자회사 모두가 기술 지향적 관점의 국제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R&D 활동 수준과 입지는 현지 국가의 기술능력 우위와 이미 개발되어진 기술 유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Patel & Vega, 1999; Christian & Sierra, 2002; Reddy, 2010). 예를 들면 영국은 제약 산업의 연구에 매력적인 국가인데, 이는 생화학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역시 전기와 전자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 활발한 해외 R&D 활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Wortmann, 1990). David(2000)의 연구는 덴마크가 다른 유럽 지역구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화학과 제약관련 연구 실험실이 밀집한 이유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화학과 제약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원 수준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을 밝혔다. 덴마크 정부에서도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제약개발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법적 제제가 낮아 많은 제약관련 다국적기업 R&D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Rodan & Galunic(2004)의 연구에서도 기술과 역량의 혁신은 다양한 지식 보유가 중요한데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인력으로부터 나오며 연구 인력이 풍부할수록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허문구(2007)의 연구에서도 인적자본 중 전문 기술 인력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혁신에 의한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단순 연구원 수와 함께 연구원 수를 전체 종업원 수로 나눈 연구원 집약도를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저비용 측면의 비용우위요소와 결합된 기술적 우위요소도 R&D 활동을 위한 자회사의 입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Davis & Meyer, 2004). 즉, 개발도상국과 같은 신흥경제국에서도 산업적 기술력과 이러한 기술력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수준의 연구기관의 존재는 다국적기업의 연구소 설립과 R&D 활동의 지역적 확대의 입지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Dörrenbächer & Wortmann, 1991). 그러므로 현지 시장의 기술적 수준과 연구 인프라는 다국적기업 R&D 활동 수행을 위한 입지 선정과 수준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외에도 Ove, et al.,(1992)의 연구에서는 R&D 활동과 관련된 현지 시장의 수요 요인이외에도, 공급관련 요인들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현지의 연구 센터나 대학 등과의 기술적 연계를 통한 R&D 활동 수행 가능성이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들의 R&D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Cantwell(1992)의 연구에서도 R&D 활동 입지 선택 시 기술관련 동기가 시장관련 동기에 비해 중요한 선정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지 시장이 높은 기술 수준을 확보하고 있거나, 각종 연구기관들이 존재하는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들의 R&D 관련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2. 현지 시장의 기술관련 환경이 우수할수록, 현지 자회사의 R&D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3)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 역량 특성

다국적기업 해외 자회사의 R&D 활동은 1980년대 이후 단순한 모기업의 기술력을 현지 생산시설과 기술에 접목하기 위한 단순 생산 보조의 차원을 넘어 본사에서 얻을 수 없는 현지 시장의 정보와 기술 그리고 경쟁사의 역량을 파악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Dunning, 1998; Holm & Pedersen, 2000).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회사가 다양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국제적인 사업 경험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Johanson & Vahlne, 1977). 즉 다국적기업은 기존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과 시장에 맞는 선택적 정보의 확보를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것은 기업이 현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명확한 이해가 부족

할 때 현지 시장에서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 문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사업경험이 많을수록 그 기업의 R&D 활동이 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랜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정확한 시장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외자회사의 역량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Calof(1994)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그 역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기업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 규모가 해외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순권(2008)의 연구에서 기업의 사업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액과 자본금 규모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이 역량이 우수할 때 결국 해외자회사는 R&D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풍부한 사업 경험을 확보하고, 매출액이나 자본금과 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출수록, 더욱 활발한 R&D 관련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3.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역량이 우수할수록, 현지 자회사의 R&D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4) 해외자회사 모기업 역량 특성

기본적으로 해외자회사들은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가진 역량과 기술력

을 해외 자회사로 이전 적용하고 활용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현지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Papanastassiou & Pearce(1997)의 연구에서는 영국 내 190개 제조업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자회사의 신제품 개발과 경쟁력은 본사의 경험과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는 자회사의 역할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해외 자회사의 모기업인 다국적 기업의 R&D 활동 능력이 뛰어날수록 그리고 시장경쟁력이 높을수록 해외자회사의 R&D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Sadowski & Sadowski(2006)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소유구조가 R&D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높을수록 R&D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특히 단순제품 개발이 아니 창조적 R&D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분구조가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는 창조적 R&D 활동은 다국적기업의 근본적 국제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기술력이 외부에 유출되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와 같은 높은 수준의 지분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모기업의 글로벌시장 경쟁력과 R&D 활동 경쟁력(Belderbos, 2003)은 자회사 R&D 활동 수준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해외자회사를 통한 기술개발 중 다국적기업의 근원적 국제경쟁력 원천인 핵심기술의 전파와 개발은 외부 유출에 상당한 위험을 갖는다. 이로 인해 다국적기업은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를 통한 자회사의 높은 지분(Sadowski & Sadowski, 2006)을 소유한 기업 형태를 추구하며, 이는 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 4. 해외자회사 모기업의 역량과 현지자회사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클수록, 현지 자회사의 R&D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5) 다국적기업 내 자원 및 지식 공유 역량 특성

Choi & Eriksson(2001)의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이전과 공유 및 조정과 같은 기능은 모기업의 특성화된 기술 전파와 지식 전환의 과정을 통해 자회사에 전달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 전달 과정은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경험과 함께 해외자회사의 R&D 활동 수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현지자회사가 다국적기업 내 R&D 활동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한 연구영역이나 독자적인 기능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더 활발한 R&D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 창출되는 지식과 역량은 대부분 암묵적 성격의 무형적 자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역량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이들 네트워크 구성원 간에 밀접하고 빈번한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즉 모기업 및 관련 자회사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상호 지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지식 이전은 해외 파견자와 같은 인적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이후의 발전적 지식전환으로 연결되어 자회사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본사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최순권, 2007). 해외 현지시장에서의 R&D 활동이 다국적기업 전체의 R&D 활동 네트워크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자회사와 모기업간의 물적 인적 자원의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수준에 따라 R&D 활동 수준에 영향

을 미친다(Zander, 1999).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다국적기업의 관점에서 연구한 Tsai & Ghoshal(1998)은 다국적기업 내부의 조직간 자원과 지식의 교환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교환은 결국 제품의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다국적기업 내 조직간 자원과 지식의 교환 및 공유 수준이, 자회사의 기능 및 역할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기술과 정보는 상당부분 암묵적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사람들에게 체득되고 습득되어진 형태의 지식이라 할 수 있다(Polanyi, 1966). 이러한 암묵적 지식은 기업 내 노동력 즉 인적 자원의 교환과 공유를 통해 지식의 전파와 전환이 이루어진다. 또한 핵심 기술의 이전과 누출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자원과 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업 간 유형 자원인 부품과 제품의 내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Buckley & Casson, 1998). 그리고 모기업이나 자회사의 기술사용과 확산으로 인해 지적 재산권을 담보로 기업 간 자금거래도 상당히 일어나게 되므로 이러한 기업 간 자원공유의 수준은 기업의 R&D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설 5. 다국적기업 내 본사와 해외자회사 간 자원 및 지식 공유 역량이 우수할수록, 현지 자회사의 R&D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STEP 2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기업 자회사 유형구분에 사용되는 Bartlett(1989)의 I-R 요인을 기본 골격으로 Forsgren, Holm & Johanson(1994), Furu(2000), Holm & Pedersen(2000), Enright & Subramanian(2007)의 연구를 접목하여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핵심 역량 사용 유무와 시장지배력을 자회사 유형 구분의 요인으로 설정한 M-M Frame을 구축하여 자회사 유형 구분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자회사의 구분의 기준은 각 항목이 가진 중앙값(Median)을 이용하여 각 집단을 구분하였다.

<표 Ⅲ-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 구분

자회사 유형 구분의 요인으로는 해외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 핵심 역량 활용(MNC Use of Subsidiary Competence) 수준과 자회사의 현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회사 유형 구분에서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이 높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을 선도적 자회사

(Global Leader)로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은 높으나 시장지배력이 낮은 기업을 창조적 자회사(Creator)로 유형을 구분했다. 또한 자회사 역량의 활용 수준은 낮으나 시장지배력 수준이 높은 자회사 유형을 흡수·활용자적 자회사(Sponge) 낮은 수준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자회사를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Local User)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외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 유형은 <표 Ⅲ-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 구분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과 연구개발(R&D) 활동

1) 선도적 자회사(Global Leader)

다국적기업 자회사 유형 구분에서 선도적 자회사는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 기능과 전략에 따라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과 시장지배력이 모두 높은 자회사이다. 이러한 유형의 자회사는 Bartlett & Ghoshal(1986 & 1989)의 연구에서 다국적기업 전략에서는 초국적 모델의 다국적기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현지시장에 대한 대응성과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글로벌 규모의 경쟁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역할 유형을 갖추고 있고 주요 활동이나 자원 모두 모기업에 집중되지 않으며 각 시장의 자회사들에게 현지시장을 기반으로 한 각각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이 분산 특화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다국적기업은 각각의 자회사를 통해 기업 효율성과 유연성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 조직 차원의 분류에서 전략적 리더로서의 자회사 유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전략적 리더 유형의 자회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 위치하고 자회사가 높은 수준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본사에 종

속되기보다 본사와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의 전반적 전략 수립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보나 기술력을 일찍 포착함과 동시에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시장지배력 측면은 Barney & Hester(2006)의 연구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개별 기업수익률과 매출액이 다른 개별 기업의 수익률과 매출액보다 높을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본 연구의 자회사 유형 중 선도적 자회사는 높은 시장지배력을 갖는 자회사 유형으로 구분되고 Holm & Pedersen(2000)의 연구에서 CoE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Enright & Subramanian(2007)의 연구에서 Leader 형태의 자회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창조적 자회사(Creator)

다국적기업 자회사 유형 구분에서 창조적 자회사는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 기능과 전략에 따라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 수준은 높으나 현지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낮은 자회사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자회사는 Bartlett & Ghoshal(1986 & 1989)의 연구에서 다국적기업 본사 관점에서 글로벌 조직과 다국적 조직 전략의 기업으로 기여자 역할을 하는 자회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모가 작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자회사 스스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경우로 다른 인접 국가나 시장에 위치한 자회사에게 기술 이전과 제품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친

다. 다국적기업 본사는 이와 같은 자회사에게 현지 시장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경영자원을 적게 투입한다면 그 자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형태의 다국적기업 본사는 기업 네트워크 안에서 현지 자회사가 가진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율권과 경영자원을 배분함으로 그 기능과 역할의 유지하게 된다.

시장지배력 측면에서는 다국적기업 내에서 역량 창출과 확산 수준은 높으나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수준의 자회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창조적 자회사 유형은 Holm & Pedersen(2000)의 연구에서 UoE 역할의 자회사로 Enright & Subramanian(2007)의 연구에서는 혁신자 형태의 자회사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규 시장 진입 초기나 시장의 정보나 중요한 기술력의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센터나 독립적 R&D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흡수·활용자적 자회사(Sponge)

다국적기업 자회사 유형구분에서 흡수·활용자적 자회사는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의 기능과 전략에 따라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 수준은 낮으나 현지 시장지배력은 높은 자회사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한 자회사는 Bartlett & Ghoshal(1986 & 1989)의 본사 관점 전략에서 글로벌 조직과 다국적 조직 수준을 가진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며 자회사의 유형으로는 생산과 판매 등의 사업을 통한 기업 수익 증대 및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기여자로서의 자회사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본사 혹은 다른 자회사로부터 생산 기술과 판매 등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측면에서 실행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창

조적 자회사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시장지배력과 낮은 자회사 역량 확산과 전파력을 갖는 것이 차이점이다. Holm & Pedersen(2000)의 연구에서는 Non Excellent 유형의 자회사와 같고 이후 Enright & Subramanian(2007)의 연구에서 실행자 형태의 자회사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지배력 측면에서는 다국적기업 내에서의 역량 창조와 확산 수준은 낮으나 실질적인 시장 내에서의 높은 시장지배력 수준을 갖는다. 이러한 흡수·활용자적 자회사는 창조적 자회사와 달리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되거나 높은 수준의 시장에 상품 공급을 위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Local User)

다국적기업 자회사 유형에서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는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 기능과 전략에 따라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 수준과 현지 시장의 시장지배력이 모두 낮은 자회사 유형이다. 이러한 자회사는 Bartlett & Ghoshal(1986 & 1989)의 다국적기업 본사 관점의 전략에서 낮은 수준의 대응성과 세계적 통합 기능을 가진 기업인 국제전략 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고, 자회사의 역할로는 실행자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Birkinshaw & Morrison(1995)의 자회사 연구에서는 현지 실행자 형태의 자회사로 Holm & Pedersen(2000)의 연구에서 Unit with Local Threshold Competence 역할과 기능을 가진 유형의 자회사이다.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 역할을 하는 자회사는 전략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장에 위치하게 되며 자회사가 가진 단순한 현지 시장에서의 사

업수행 활동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많은 수의 다국적기업 자회사는 이러한 실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R&D 활동과 같은 기능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이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자회사에 위치하고 나머지 국가에 위치한 자회사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부품 조달과 제품 조립 및 생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국적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을 도입해 그 국가에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다국적기업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 역할은 다국적기업 내에서 생산과 판매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의 상당한 매출은 이들 자회사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회사 역할과 기능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 선도적 자회사는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 기능과 전략에 따라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과 시장지배력이 모두 높은 자회사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 위치하며 자신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본사에 종속되기보다 본사와 동등한 수준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결국 시장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R&D 활동 수준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창조적 자회사는 시장 규모보다 자율권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이 요구하는 혁신적 R&D 활동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므로 선도적 자회사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흡수·활용자적 자회사는 생산과 판매 등의 사업을 통한 기업 수익 증대 및 시장지배력 강화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R&D 활동보다는 생산과 판매를 위한 기업 활동에 중점을

둔 자회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R&D 활동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는 다국적기업 본사의 단순 사업수행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자회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가질 것이다.

이와 같이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유형별 기능과 역할이 상이하며 각각의 상황에 적당한 수준의 R&D 활동 수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다국적기업 현지 자회사의 유형별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R&D 활동 수준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유형별 R&D 활동은 수준에 차이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짐으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가설 6. 다국적기업의 선도적, 창조적, 흡수·활용자적,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 유형 간에는 연구개발(R&D)활동 수준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Ⅳ.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와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유형구분에 관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의 설정과 수집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또한 자회사R&D 활동 수준 결정과 유형 구분을 위한 각각의 요인별 변수와 분류 방법 그리고 이들 변수의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1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결정요인 변수

1) 종속변수 :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변수

자회사 R&D 활동 수준의 측정은 최순권(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비 지출 규모와 연구원 수를 측정하였다. 이것은 연간 R&D 활동 관련 지출 경비의 합계를 연구비로 연구 관련 인력을 연구원 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투자수준은 지난 3년간 R&D 활동에 투자된 연구개발비의 투자수준으로, R&D 활동 수준은 한국 시장 내에서의 R&D 활동 경쟁력 수준과 관련된 질문을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 연구개발(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① 시장특성

시장특성의 측정에는 한국 시장 내에서 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한 우수한 공급자(Supplier)의 존재(Gerybadze & Reger, 1999), 해당 산업의 수요 크기(Reddy, 2010), 해당 산업이 가지는 수요의 다양성(Ove, et al., 1992), 해당 산업의 시장 성장성(Patel & Vega, 1999), 산업의 글로벌화(Zedtwitz & Gassmann, 2002) 정도, 산업의 기술변화 속도(김완민 외, 2006), 산업의 전반적 수준(Patel & Vega, 1999)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② 기술특성

기술특성 변수의 측정에는 한국 시장 내 연구기관들의 연구수준(Meyer & Mizushima, 1989; Wortmann, 1990; Cantwell, 1992; Patel & Vega, 1999)과 한국 시장 내에서의 산업과 연관된 우수한 연구기관에 관한 수준 정도(Meyer & Mizushima, 1989; Wortmann, 1990; Cantwell, 1992; Christian & Sierra, 2002)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③ 자회사특성

자회사특성 측정에는 Belderbos(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한국 시장 내 자회사 시장 경험인 한국 시장 자회사 설립일을 기준으로 사업 년 수를 측정하였다. 또한 Calof(1994)와 최순권(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회사의 종업원 수와 매출액 그리고 자본금을 측정하였으며, 이것은 2010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④ 모기업특성

모기업특성 측정에는 다국적기업 모기업의 글로벌시장 내 경쟁우위 수준과 R&D 활동 경쟁우위 수준(Belderbos, 2003)을 활용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Sadowski & Sadowski(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외 다국적기업 모기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회사의 투자 지분 비율(%)을 사용하였다.

⑤ 자원공유특성

자원공유특성의 측정에는 Tsai & Ghoshal(1998), Zander(1999), Choi & Eriksson(2001), 이강문 외(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모기업과 국내 자회사의 인적 공유, 기술 및 정보 공유, 부품(제품)의 내부 공유, 자금(자산)의 내부 공유 수준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는 최순권(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산업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수준 정도로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Ⅳ-1>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결정요인 변수의 측정

변수	요인		측정방법(요인분석 문항약호)	관련 연구
종속	연구개발 (R&D) 활동 수준		연구개발비(R&DL1) 연구원 수(R&DL2) 지난 3년간 투자 수준(R&DL3) R&D 활동 수준(R&DL4)	장윤종 외(2007) 최순권(2008)
독립	현지 환경 요인	시장 특성	공급자(Supplier)의 수준(MCF1) 시장의 수요(MCF2) 수요의 다양성(MCF3) 산업의 성장성(MCF4) 산업의 글로벌화 수준(MCF5) 기술 변화의 속도(MCF6) 산업의 수준(MCF7)	Cantwell(1992) Gerybadze & Reger(1999) Patel & Vega(1999) Christian & Sierra(2002) Davis & Meyer(2004) Reddy(2010) 김완민 외(2006)
		기술 특성	연구기관 수준(TCF1) 연구기술 수준(TCF2)	
	기업 요인	자회사 특성	자본금(RSCF1) 매출액(RSCF2) 종업원 수(RSCF3) 국내 사업 경험(RSCF4)	Calof(1994) Belderbos(2003) Sadowski & Sadowski(2006) 최순권(2008)
		모기업 특성	시장 경쟁력(PCCF1) 자회사 투자 비중(PCCF2) 글로벌 R&D 경쟁력(PCCF3)	
		자원 공유 특성	인적 교류(RSCF1) 기술(정보) 교류(RSCF2) 부품(제품)의 내부거래(RSCF3) 자금(자산)의 내부거래(RSCF4)	Zander(1999) Choi & Eriksson(2001) 이강문 외(2010)
통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	김완민 외(2006)

2.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 구분 변수

1)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MNC Use of Subsidiary Competence)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 수준은 Fratocchi & Lorenzoni(2000), Furu(2000), Holm & Sharma(2000)의 연구를 활용하여 국내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R&D 활동능력과 기술력 사용에 관한 것으로 설정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나 해외 자회사에서 국내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R&D 활동 능력에 대한 사용 유무를 구분하여 다국적기업 내 공식적 사용 관계 유무로 측정했다.

2)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국내 시장지배력 수준은 Barney & Hester(2006), Belderbos(2003), 장세진(2010)의 연구를 활용하여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또는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인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으로 실현된 금액을 나타내는 매출액과 기업이 일정 영업 기간 올린 이익률인 수익률 그리고 시장지배력의 중요한 측정 기준이 되는 시장점유율의 수준 정도를 활용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2절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자회사가 소유한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과 시장지배력이라는 요인에 따라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에 설립된 해외 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를 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확한 기업 내부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나 최근 한신평신용정보(주)의 Kis Value에서 국내 상장기업, 외감기업, 금감위등록기업 등의 기업 개요와 상세한 정보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국내 21,000여 기업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Kis Value의 자료 중 2010년 기업 결산 외국인투자기업 자료 총 2,469개 기업리스트로서 외국인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1,016개 기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조사를 위해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표본 기업으로 선정된 1,016개 기업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실시해 설문 요청 후 담당자에게 e-mail과 팩스를 통한 설문지 전달 및 설문을 실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총 163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전체 설문 응답 중 19개의 부실 응답을 제외한 144개를 최종 설문 표본으로 설정하였고 통계프로그램으로는 SPSS15.0을 이용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Ⅴ. 실증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후 자료의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마지막으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 결정에 관한 가설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유형 구분과 R&D 활동 수준 측정을 위한 실증 분석에서는 군집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자회사 집단을 구분하고 이후 분산분석과 사후 검정을 통해 구분된 자회사 유형 간 R&D 수준과 시장 지배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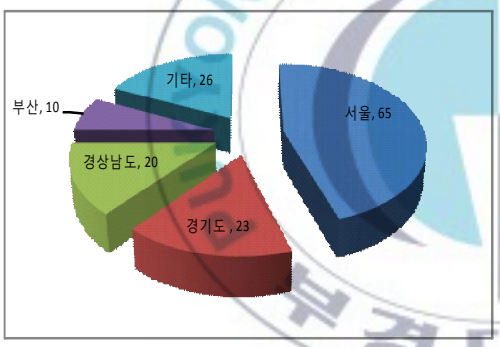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내 진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중 144개 기업 자료의 일반적 현황 분포는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다.

해외자회사의 국내 지역적 분포는 <표 Ⅴ-1>과 같이 서울 지역에 전체 65개 기업(45.1%)이 위치하고, 경기도가 23개 기업(16.0%), 경상남도에 20개 기업(13.9%), 부산 10개 기업(6.9%), 기타 지역에 26개 기업(18.1%)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국내 진출한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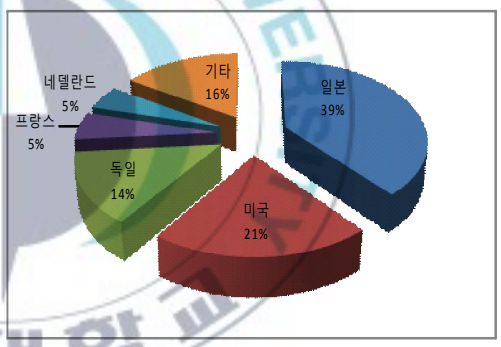
알 수 있다.

국내 자회사의 모기업이 위치한 국가는 <표 Ⅴ-2>와 같이 일본이 전체 기업 중 56개 기업(38.9%)의 모기업 국가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이후 미국 30개 기업(20.8%), 독일 20개 기업(13.9%), 프랑스 8개 기업(5.6%), 네덜란드 7개 기업(4.9%) 그리고 기타 국가 23개 기업(16.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기업 순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1> 자회사의 국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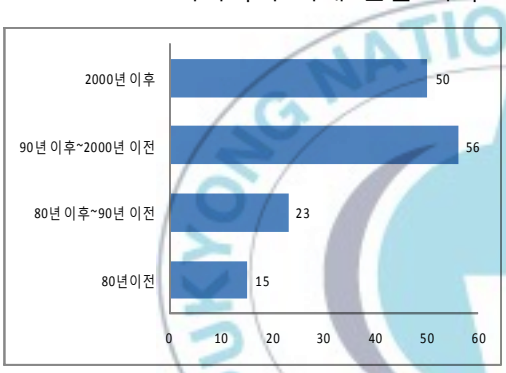
<표 Ⅴ-2> 자회사의 모기업 국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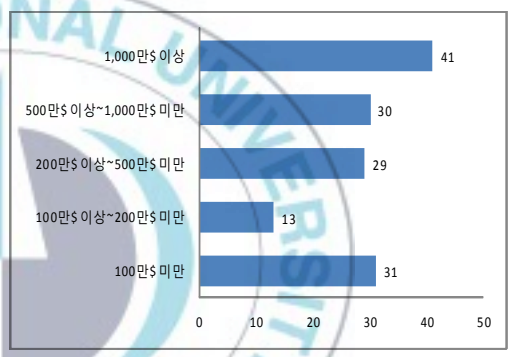
조사 대상기업의 국내 진출 시기는 <표 Ⅴ-3>과 같이 1980년 이전 진출한 기업은 15개 기업(10.4%)이었으며 1980년 이후 1990년 이전 국내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23개 기업(16.0%)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1990년 이후 2000년 이전 국내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56개 기업(38.9%)이었고 2000년 이후 국내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50개 기업(34.7%)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최근 20년간 국내 진출한 해외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전체의 73.6%를 차지하는 것으로 한국시장의 성장과 변화를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표 Ⅴ-4>와 같이 100만 달러 미만이 31개 기업(21.5%), 100만 달러 이상 2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은 13개 기업(9.0%), 2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은 29개(20.1%), 5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은 30개(20.8%) 그리고 국내 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은 41개 기업(28.5%)로 조사되었다.

<표 Ⅴ-3> 자회사의 국내 진출 시기



<표 Ⅴ-4> 자회사의 투자 자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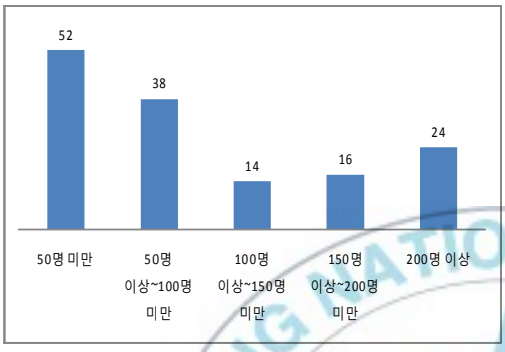


국내자회사의 종업원 수는 <표 Ⅴ-5>와 같이 50명 미만의 기업은 52개 기업(36.1%)이고, 종업원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기업은 38개 기업(26.4%) 분포를 보였다. 종업원 수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의 기업은 14개(9.7%), 종업원 수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기업은 16개 기업(11.1%) 그리고 200명 이상의 종업원 수를 가진 기업은 24개 기업(16.7%) 분포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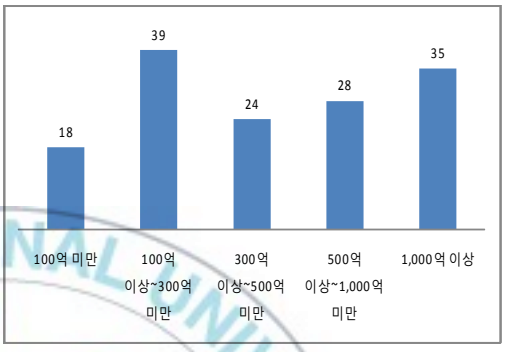
자회사의 2010년 연간 매출액은 <표 Ⅴ-6>과 같이 100억 원 미만의 기업이 18개 기업(12.5%),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기업은 39개 기업(27.1%),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의 기업은 24개 기업(16.7%),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의 기업은 28개 기업(19.4%)으로 조사되었으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도 35개(24.3%)로 조사되었다.

<표 Ⅴ-5> 자회사의 종업원 수



<표 Ⅴ-6> 자회사의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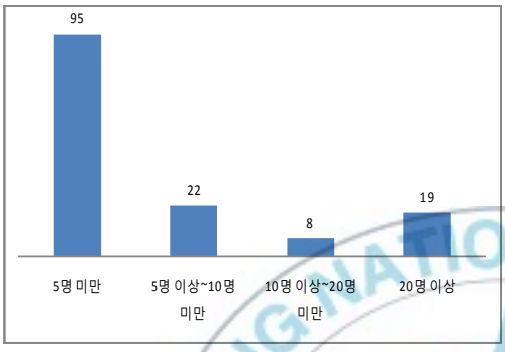


국내자회사의 연구원 수는 <표 Ⅴ-7>과 같이 5명 미만인 기업이 95개 기업(66.0%),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기업이 22개 기업(15.3%), 연구원 수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기업은 8개 기업(5.6%) 그리고 20명 이상의 연구원 수를 가진 기업은 19개 기업(13.2%)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에서 연구원 수 10명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81.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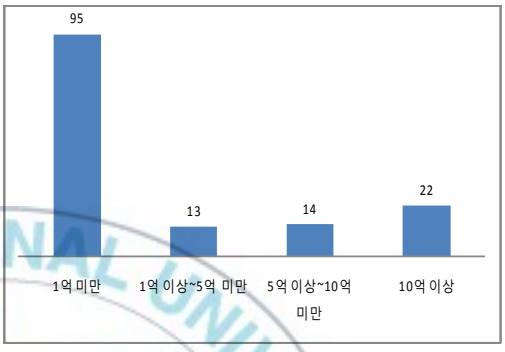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비용의 지출 규모는 <표 Ⅴ-8>과 같이 1억 원 미만이 95개 기업(66.0%)으로 조사되었고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13개 기업(9.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기업이 14개(9.7%), 10억 원 이상의 R&D 활동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이 22개 기업(15.3%)으로 조사되었다. R&D 활동 비용의 현황에서는 R&D 활동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10억 원 미만 기업이 84.7%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진출 다국적기업의 R&D 활동에 투자하는 수준은

상당수가 10억 원 이하의 R&D 활동에 관한 지출비용과 10명 미만의 연구원을 갖춘 수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Ⅴ-7> 자회사의 연구원 수



<표 Ⅴ-8> 자회사의 연구개발비(R&D)



2절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결정요인 분석

1. 신뢰성 분석

확률(Probability)은 통계학이나 조사방법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대부분의 통계분석은 모집단 전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이에 따른 오류를 없애고자한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 분석에서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정확성(Accuracy)이라고도 표현한다. 이러한 신뢰성은 어떠한 측정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 값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

내는 지표로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얻은 측정 결과 값들의 분산으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이훈영, 2006).

<표 Ⅴ-9> 신뢰성 분석

항목	설명	CITC	제거 이유	Cronbach`α
MCF1	공급자(Supplier) 수준	0.545		0.855
MCF2	시장의 수요	0.760		
MCF3	수요의 다양성	0.733		
MCF4	산업의 성장성	0.641		
MCF5	산업의 글로벌화 수준	0.675		
MCF6	기술 변화의 속도	0.528	단일차원성	
MCF7	산업의 수준	0.483	단일차원성	
TCF1	연구기관 수준	0.560		0.717
TCF2	연구기술 수준	0.560		
SCF1	자본금	0.519		0.765
SCF2	매출액	0.634		
SCF3	종업원 수	0.641		
SCF4	국내 사업 경험	-0.223	정화절차	
PCCF1	시장 경쟁력	0.809		0.894
PCCF2	자회사 투자 비중	0.130	정화절차	
PCCF3	글로벌 R&D 경쟁력	0.809		
RSCF1	인적 교류	0.584		0.797
RSCF2	기술(정보) 교류	0.761		
RSCF3	부품(제품)의 내부거래	0.701		
RSCF4	자금(자산)의 내부거래	0.437		
R&DL1	연구개발비	0.804		0.852
R&DL2	연구원 수	0.737		
R&DL3	지난 3년간 R&D 투자 수준	0.628		
R&DL4	R&D 활동 수준	0.706		

그러므로 본 연구 조사 자료의 신뢰성 분석에 앞서 단일차원성

(Unidimensionality)을 높이고 위하여 먼저 측정변수 중 각 항목과 전체 상관계수 값이 0.3미만인 성분 값을 제거하는 정화절차(Purification Process)를 통하여 집중타당성을 높였다(John. G. 1984).

그 결과 본 연구의 설문 측정변수 중 0.3미만의 계수로 측정된 자회사특성 변수 중 국내시장에서의 사업경험(-0.223) 항목과 모기업특성 변수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투자 지분비중(0.130) 항목을 제거하였다. 또한 현지 환경특성요인 중 시장특성 변수 중 국내 시장의 기술 변화(0.528)의 속도 항목과 산업의 수준(0.483) 항목은 단일차원성 확보를 위하여 제거되었다. 이러한 항목별 변수의 수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될 변수의 신뢰성은 <표 Ⅴ-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독립변수 현지환경요인 중 시장특성 요인의 Cronbach'α값은 0.855이며 기술특성 요인의 Cronbach'α값은 0.717이다. 그리고 기업요인 중 자회사특성 요인의 Cronbach'α값은 0.765이고 모기업의 Cronbach'α값은 0.894이며 기업 간 자원공유특성 요인은 0.797이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R&D 활동 수준 관련요인의 Cronbach'α값은 0.852의 값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Nunnally(1978)의 Cronbach'α값 0.6 이상은 신뢰성 수용 수준을 만족하고 변수 측정에 필요한 내적일관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2. 요인 분석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해 이들 간 공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내재된 요인들을 추출하여 전체 자료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한 통계적 분석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10> 요인 분석

	성분					
	시장	R&D	공유	자회사	모기업	기술
MCF2	.879	.009	.061	.088	.006	.064
MCF3	.852	-.025	.136	.091	-.090	.056
MCF1	.786	.121	-.020	.064	.118	-.118
MCF4	.657	.002	.163	-.062	.192	.243
MCF5	.653	-.041	.133	.069	.046	.398
R&DL2	.155	.841	.070	.236	-.096	.022
R&DL1	.110	.829	.108	.301	-.123	.051
R&DL4	-.125	.769	.264	.077	.047	.254
R&DL3	-.073	.769	.028	-.001	.124	.253
RSCF2	.110	.058	.875	.142	.078	.052
RSCF3	.168	.165	.818	-.077	.039	-.149
RSCF1	.174	-.068	.780	.018	.125	.036
RSCF4	-.061	.263	.606	.063	.067	-.103
SCF3	.178	.181	-.021	.813	.104	.030
SCF1	-.115	.029	.114	.790	.029	.197
SCF2	.177	.333	.044	.767	.018	-.076
PCCF3	.090	.017	.094	.081	.938	.039
PCCF1	.082	-.045	.177	.052	.920	-.058
TCF2	.115	.217	-.098	.003	-.038	.828
TCF1	.227	.274	-.096	.183	.007	.704
Eigen Value	3.264	2.968	2.639	2.127	1.870	1.638
Pct of Var	16.318	14.841	13.193	10.633	9.351	8.190
Cum Pct	16.318	31.159	44.353	54.985	64.337	72.526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72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a. 7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 분석의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은 베리맥스(Varimax)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표 Ⅴ-10>의 요인 분석 결과와 같이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가 0.723으로 조사되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 p값은 0.000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KMO측도 0.5 이상과 Bartlett 유의수준 0.1 이하에서는 요인 분석의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훈영, 2006). 그러므로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요인 분석에서 총 6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렇게 추출된 요인의 총 분산 값은 72.526%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추출된 6가지 요인에 의해 전체 요인의 72.526% 수준의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문항들의 요인 적재 값(Factor Loading) 중 자원공유의 특성 중 자금(자산)의 내부거래 수준 항목이 0.606의 최소 요인 적재 값을 갖고, 모기업특성 중 해외시장에서의 글로벌 R&D 활동 경쟁력 수준이 0.938로 최대 요인 적재 값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될 자료들에 대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유무에 대한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의 사후 검증으로 Harmon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를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에서 요인분석의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인 요인은 총 6개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R&D활동 수준 요인의 총 분산 설명력은 21.69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대우도에 의해 추출된 추출제곱합 적재값이 하나의 요인 값만을 갖거나 혹은 그 이상의 요인으로 분류되더라도 하나의 요인

값에 의해 절대적인 설명력을 갖게 된다면 동일방법편의가 존재한다는 Podsakoff, et al.,(2003)의 연구 가정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 자료의 동일방법편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Ⅴ-11>과 같으며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과의 연관성을 지닌 요인으로 먼저 통제변수인 정부의 지원 수준은 신뢰수준 99%에서 0.269의 상관계수를 갖는다.

<표 Ⅴ-11> 상관관계 분석

	평균	표준편차	정부지원	시장	기술	자회사	모기업	공유	R&D
정부	2.74	.555	1						
시장	3.40	.482	.008	1					
기술	2.88	.416	.523(**)	.281(**)	1				
자회사	2.56	1.174	.176(*)	.191(*)	.205(*)	1			
모기업	3.86	.698	-.017	.153	.001	.124	1		
공유	3.37	.611	-.089	.232(**)	-.059	.132	.249(**)	1	
R&D	2.09	.776	.269(**)	.100	.381(**)	.402(**)	.001	.243(**)	1

주 1) **, * 는 각각 1%, 5% 수준(양쪽)에 유의함.

또한 현지환경요인인 기술특성 변수는 신뢰수준 99%에서 0.381의 상관계수를 갖고 기업요인인 자회사 특성과 자원 공유특성 변수는 각각 신뢰수

준 99%에서 0.402와 0.243의 상관계수 값을 갖는다. 그리고 현지환경요인의 시장특성 변수와 모기업특성 변수는 유의한 신뢰수준에서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유재(2000)의 연구 결과에서 상관계수 0.85이하의 값을 갖는 요인은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모든 요인들 간 상관계수가 0.85 이하의 값을 가지므로 상관관계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 간의 판별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4. 다중회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 결과가 도출된 변수를 중심으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입력(Enter)방식을 이용한 3가지 모델의 다중회귀 분석법(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Ⅴ-12>와 같다.

우선 다중회귀 분석결과 표 Model Ⅰ은 앞선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결과가 나타난 현지 시장에서의 정부지원 수준과 R&D 활동 수준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ModelⅡ는 현지환경요인인 시장특성과 기술특성 그리고 통제변수인 정부지원이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마지막 다중회귀 모형 ModelⅢ에서는 기업요인인 자회사 특성, 모기업 특성 그리고 자원공유특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다중회귀 분석 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진단을 위한

분산확대지수(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은 Model Ⅰ 정부지원에서는 1.000의 값을 현지환경요인이 추가된 ModelⅡ에서는 시장특성이 1.118, 기술특성이 1.538, 정부지원이 1.417로 각각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업요인이 추가된 ModelⅢ에서는 모기업특성요인이 가장 낮은 1.085의 값과 기술특성이 가장 높은 1.567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조사된 모든 변수들의 VIF 값은 10이하의 값을 가지게 됨으로 본 연구 다중회귀 분석 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Eriksson, et al., 2006).

<표 Ⅴ-12> 다중회귀 분석

	변수	표준화β	t	유의확률	VIF	모형
Model Ⅰ	정부지원	.269	3.322	.001	1.000	F=11.033** R^2=.072 수정된R^2=.066
Model Ⅱ	시장	.007	.081	.936	1.118	F=8.371** R^2=.152 수정된R^2=.134 △R^2=.080
	기술	.329	3.411	.001	1.538	
	정부지원	.096	1.040	.300	1.417	
Model Ⅲ	시장	-.103	-1.323	.188	1.223	F=11.038** R^2=.326 수정된R^2=.296 △R^2=.174
	기술	.327	3.729	.000	1.567	
	자회사	.318	4.325	.000	1.101	
	모기업	-.090	-1.231	.220	1.085	
	자원공유	.272	3.629	.000	1.142	
	정부지원	.065	.770	.442	1.436	

주 1) 모형 단계별 통계 변화량의 유의확률 F 변화량 : F = 11.033**, 6.604**, 11.773**
2) **, * 는 각각 1%, 5% 수준에 유의함.
3) 종속변수 : R&D 활동 수준

또한 추가된 요인 수 증가에 대한 각 단계별 회귀 모형 R^2의 통계량 변화 값에 대한 유의성 검정에서 유의확률 F변화량은 각 모델의 단계별 F = 11.033**, 6.604**, 11.773**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모델별 추가 요인이 R&D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별 모형의 유의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결과 분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Model 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Model Ⅰ은 통제변수인 한국시장에서의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p<0.01$, $t=3.322$) 수준과 같은 인센티브 요인이 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으로 유의확률 $F=11.033(p<0.01)$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때 표준화β값은 0.269의 값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정부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요인은 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Ⅱ에서는 통제변수 정부의 지원 수준이 R&D 활동 수준에 미치는 관계 분석 모델인 Model Ⅰ에 현지환경요인인 시장특성변수와 기술특성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것으로 모델의 유의확률 $F=8.371(p<0.01)$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술특성($p<0.01$, $t=3.411$)변수의 표준화β값은 0.329로 조사되었고, 시장특성($p<0.936$, $t=0.081$) 변수와 통제변수 정부지원($p<0.300$, $t=1.040$) 수준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 모형인 ModelⅢ에서는 기업요인인 자회사특성과 모기업특성 그리고 자원공유특성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ModelⅢ 회귀 모형의 유의성 F 값은 $11.038(p<0.01)$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모형

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0.326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독립변수 중 시장특성변수인 기술특성(p<0.01, t=3.729)의 표준화β값은 0.327로 조사되었다. 기업특성변수인 자회사특성(p<0.01, t=4.325)의 표준화β값은 0.318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원공유특성(p<0.01, t=3.629)의 표준화β값은 0.272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장특성(p<0.188, t=-1.323)과 모기업특성(p<0.220, t=-1.231) 그리고 정부지원 특성(p<0.442, t=0.770)은 유의한 결과 값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EPT Ⅰ의 연구 가설 검정은 ModelⅢ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 가설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환경요인 중 시장특성과 관련한 가설 H1 현지 시장 내 관련 산업 환경이 다국적기업에게 우호적일수록, 현지 자회사의 R&D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은 t값 -1.323, 유의확률 0.188로 유의수준을 벗어나 가설 H1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도출은 각각의 산업별 R&D 활동 수준이 갖는 차별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별 분류나 통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진한 국내 현실 속에서 진행된 연구로서 산업별 구분이 없이 분산되어진 국내의 모든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각각의 산업이 갖는 R&D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유의확률을 벗어난 결과 값이 나타나게 된 원인으로 사료되어진다.

둘째, 현지환경요인 중 기술특성은 t값 3.729(p<0.01)에서 0.327의 표준화β값을 갖는 것으로 유의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H2 현지 시장의 기술관련 환경이 우수할수록, 현지 자회사의 R&D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시장의 기술특성인 연구기관과 연구수준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R&D 활동을 수행하는 이유 중 하나인 시장의 R&D 활동 인프라와 기술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국적기업은 한국 시장의 R&D 활동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서 기업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 기술개발 능력에 도움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시장의 산업 기술에서 기업의 시장 동향과 제품 및 기술과 연관된 다양한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함으로 시장 예측이 가능한 가치를 얻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R&D 활동 관련 인프라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R&D 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사료된다.

셋째, 기업요인 중 자회사특성 요인의 t값 4.325($p<0.01$)에서 0.318의 표준화β값을 갖는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가설 H3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역량이 우수할수록, 현지 자회사의 R&D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결국 한국 시장 내 자회사의 규모는 R&D 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자회사 특성인 사업규모는 R&D 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업의 R&D 활동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필요로 하며 때론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업 위험 감수는 R&D 활동의 투자가 향후 지속적이며 상당한 수준의 매출로 이어지기 위해 기업은 투자를 감당해야하므로 이러한 경우 기업은 충분한 여유 자금을 확보를 통해 R&D 활동을 실현하고 미래의 발전 원동력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기업요인 중 모기업특성 요인의 t값은 -1.231(p<0.220)로 유의한 결과 값을 갖지 못했다. 그러므로 가설 H4 해외자회사 모기업의 역량과 현지자회사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클수록, 현지 자회사의 R&D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도 가설 I 과 비슷한 경우로 한국시장에 진입한 자회사의 성격이 한국 시장에 대한 전초기지적인인 역할인지 단순히 본사가 지닌 기술과 역량을 현지화하기 위한 자회사인지 또는 한국 시장의 기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 없이 하나의 획일화된 그룹화 작업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다섯 번째 기업요인 중 모기업과 자회사 간 자원공유특성 요인의 t값은 3.629(p<0.01)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가설 H5 다국적기업 내 본사와 해외자회사 간 자원 및 지식 공유 역량이 우수할수록, 현지 자회사의 R&D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자회사와 다국적기업 간의 R&D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다국적기업 모기업과 한국시장 자회사 간 자원과 지식의 교환 및 공유 수준은 기업 전략과 자회사의 수준 결정에 중요한 역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업의 기술과 정보에 관련된 지식이 상당부분 암묵적 지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의 전파와 확산을 위해 기업 간 인적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유는 결국 기업의 핵심 자원과 기술 전달 과정에서 외부 유출에 대한 위험 감소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무형 자원뿐만이 아니라 유형 자원인 부품과 제품의 내부거래 역시 R&D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유·무형의 자원 공유와 교환이 결국 높은 수준의 기업 간 부품 및 제품에 대한

내·외부적 거래 수준과 공유 정도와 더불어 자회사 혹은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에 대한 확산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 혹은 로열티의 형태로 교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에 대한 결과에서는 t값 0.770($p<0.442$)로 정부지원의 수준이 R&D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 값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크기는 요인들의 표준화 β값을 통해 기술특성(0.327) > 자회사특성(0.318) > 자원공유특성(0.272)과 같은 순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내 산업의 기술력과 연구 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R&D 활동 수준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절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유형과 연구개발(R&D) 활동 수준

시장지배력과 자회사 역량의 활용도에 따른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유형 구분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개인 또는 여러 개체 중에서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몇 개의 집단으로 그룹화한 다음, 각 집단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 전체의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분석방법이다(이훈영, 2006). 본 연구에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역할 유형 구

분을 위해 유클리디안 제곱거리를 이용한 Ward방식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화 단계에서 계수의 변화 상태와 덴드로그램을 통해 144개의 자회사를 군집 수 3개로 확정하였고, 각 군집별 교차분석 결과는 <표 V-13>의 자회사 군집별 교차분석과 같다. 이러한 군집분석 결과는 자회사 유형 구분에 있어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표 V-13> 자회사 군집별 교차분석

변수	값	집단1	집단2	집단3	전체	유의확률
기술 활용	0.00	0(0)	103(100)	27(100)	130(90.3)	.000
	1.00	14(100)	0(0)	0(0)	14(9.7)	
시장 경쟁 우위	1.00	0(0)	0(0)	2(7.4)	2(1.4)	.000
	2.00	0(0)	0(0)	25(92.6)	25(17.4)	
	3.00	9(64.3)	86(83.5)	0(0)	95(66.0)	
	4.00	4(28.6)	15(14.6)	0(0)	19(13.2)	
	5.00	1(7.1)	2(1.9)	0(0)	3(2.1)	
전체		14(100)	103(100)	27(100)	144(100)	

주 1) 계층적 군집분석의 유클리디안 제곱 거리를 이용한 Ward 연결법을 사용
2) 집단1, 2, 3은 각각 Global Leader, Sponge, Local User 유형의 자회사

본 결과를 바탕으로 구분된 각 집단이 갖는 특성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형별 자회사 집단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이후 Duncan 검정을 통해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분류된 유형이 갖는 특성에 대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유형 구분에 따른 집단 간 R&D 활동 수

준과 시장지배력 그리고 자회사 역량의 활용에 관한 집단 수준의 차이는 <표 Ⅴ-14>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분된 자회사 유형은 선도적자회사, 창조적자회사, 흡수·활용자적 자회사,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 같이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역량 활용 유무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 역량의 활용이 있는 집단 중 시장 지배력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되어지는 창조적자회사 유형의 집단4는 조사되지 않았고, 군집 분석의 집단 구분에서도 창조적자회사를 제외한 3개의 집단으로만 구분되었다.

먼저 시장 지배력에 따른 자회사의 유형 구분에서 분류된 3개의 집단 간 분산분석 모형의 F값은 97.719(p=0.000)로 유의한 결과 값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R&D 활동 수준에 대한 집단 간 분산분석 모형의 F값 역시 34.969(p=0.000)로 유의한 결과 값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시장지배력과 자회사의 역량 활동에 따른 3가지 유형의 자회사 간 분산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1의 특성 중 시장 지배력은 3.43(표준편차=0.6462)로 가장 높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회사가 가진 역량의 다국적기업 본사나 자회사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조사된 집단1의 비율은 전체 144개 조사대상 기업 중 14개로 전체 자회사 중 9.8%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집단1의 자회사 유형은 선행연구에서 시장지배력이 높고 자회사 역량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자회사 유형인 선도적 자회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도적 자회사의 R&D 활동 수준 역시 조사 대상 자회사 유형 중 가장 높은 R&D 활동 수준인 3.28(표준편차=0.6708)로 조사되었

다. 집단 1의 유형인 선도적 자회사의 특징인 높은 수준의 시장지배력과 다국적기업 본사 혹은 다른 지역의 자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력과 역량을 사용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자회사가 가진 역량의 기술 개발을 위해 높은 R&D 활동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선도적 자회사의 기능과 역량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은 전략적 경영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과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선도적 자회사를 통해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보력과 기술력 확보와 같은 기술개발은 다국적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러한 선도적 자회사는 다국적기업 내에서 선도적 기능과 역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자율적인 시장 대응과 꾸준한 R&D 활동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집단2로 구분되는 유형의 자회사 특성은 우선 총 144개 조사대상 기업 중 103개로 71.5%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기업 형태이다. 이러한 자회사의 시장 지배력 수준은 3.18(표준편차=0.4372)로 조사되었으며 자신이 가진 기업 역량을 다국적기업에 전파하거나 활용시키지 못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흡수·활용자적 자회사(Sponge)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R&D 활동 수준은 2.08(표준편차=0.7052)로 선도적 자회사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중 흡수·활용자적 자회사(Sponge)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 시장 자체가 다국적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시장 규모와 함께 신규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자회사는 다국적기업 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R&D 활동 수준을 증가시켜 본사 혹은 다른 지역 자회사에 기술력과 핵심 역량을 전파하는 기능과 역할을 증가시킴으

로써 선도적 자회사로 변화 이동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표 Ⅴ-14>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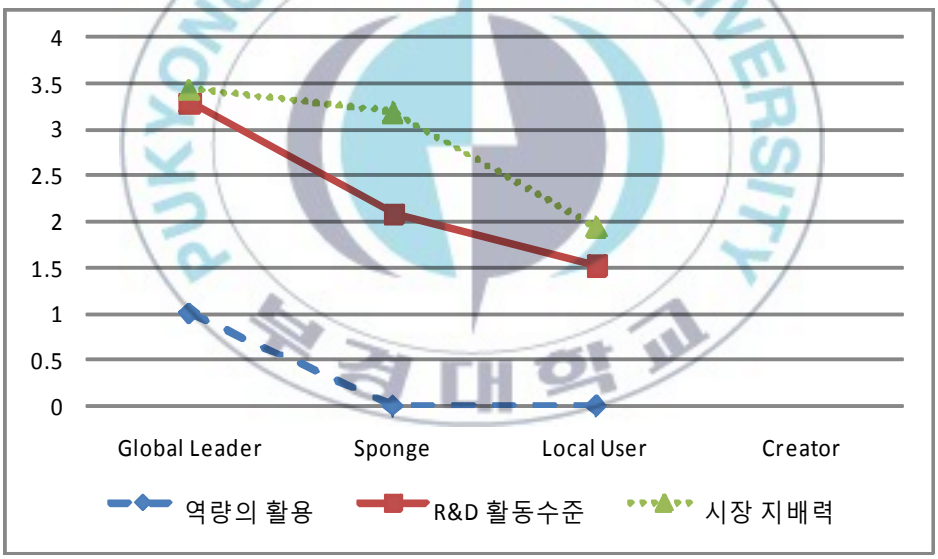
구분	집단1 (n=14)	집단2 (n=103)	집단3 (n=27)	집단4 (n=0)	F값 (유의확률)
R&D 활동	3.28	2.08	1.52	-	34.969 (p=.000)
표준편차	.6708	.7052	.1952	-	
Duncan 검정	집단1[a] > 집단2[b] > 집단3[c]				p=.05에 대한 부집단
	1.000	1.000	1.000	-	
시장 지배력	3.43	3.18	1.93	-	97.719 (p=.000)
표준편차	.6462	.4372	.2669	-	
Duncan 검정	집단1[a] > 집단2[b] > 집단3[c]				p=.05에 대한 부집단
	1.000	1.000	1.000	-	
역량의 활용	1	0	0	-	
표준편차	0	0	0	-	

주 1) 사후분석은 Duncan의 사후 검정을 실시
2) 집단1, 2, 3, 4는 각각 Global Leader, Sponge, Local User, Creator 유형의 자회사
3) 군집분석 결과에서의 최종 군집 수는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어 집단4(Creator)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전체적 이해를 돕기 위해 본 결과표에 표시함.
4) 역량의 활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역량의 활용(1)과 비활용(0)으로 구분

집단3으로 구분되어진 유형의 자회사는 전체 27개 기업으로 조사되어 144개의 조사 기업 중 18.7%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유형의 자회사 특성 중 시장 지배력 수준은 1.93(표준편차= 0.2669)을 가지며 자회사가 가진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단

3 유형의 자회사는 본 연구에서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Local User)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자회사가 가지는 R&D 활동 수준은 전체 유형의 자회사 중 가장 낮은 1.52(표준편차=0.1952)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자회사 유형은 한국시장에서 자회사 스스로의 자율적 사업 판단과 능동적 경영보다는 다국적기업의 단순한 현지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이행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로 판단된다. 또한 다국적기업 본사의 사업 전략을 위한 시장 정보의 관찰과 전달 혹은 초기 시장진입을 위한 전초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고 사료되어진다.

<표 Ⅴ-15>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유형별 특성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모형 SEPT Ⅱ의 연구 가설 검정을 위한 <표 Ⅴ-14>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유형에 관한 분산분석과 사후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H6 다국적기업의 선도적, 창조적, 흡수·활용자적,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 유형 간에는 R&D 활동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적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자회사 유형 구분에서 한국 시장은 창조적 자회사 유형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유형 구분의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와 같이 유형구분이 존재했으며 또한 구분된 유형의 국내 자회사 간 R&D 활동 수준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활동 수준에 대한 집단 간 차이와 크기는 Duncan 검정을 통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우선 선도적 자회사(집단1), 흡수·활용자적 자회사(집단2),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집단3)는 각각 3.28, 2.08, 1.52의 R&D 활동 수준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 간 사후 검정결과는 'H_0 각 집단 간 분산은 같다'라는 가정의 귀무가설은 p=.05에 대한 부집단에서 유의수준이 1.000임으로 사후 검정의 귀무가설은 위배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집단 간 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은 선도적 자회사(집단1)^{a} > 흡수·활용자적 자회사(집단2)^{b} > 현지 사용자적 자회사(집단3)^{c} 의 수준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본 결과는 자회사가 가진 역량의 활용도가 높고 시장 잠재력이 높은 자회사 유형일수록 R&D 활동 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 대상 144개 자회사의 조사에서는 높은 수준의 자회사 역량 다국적기업 활용도와 낮은 현지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으로 구분되는 창조적 자회사(Creator)유형의 자회사는 조사되지 않았다. 창조적 자회사 유형은 다국적기업 본사 혹은 해외 자회사의 기술력과 역량의 활용을 위해 설립되는 유형의 자회사로 대체적으로 기술집약적 R&D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적 자회사가 이번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시장이 가진 정보와 기술력을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국적기업의 미래 시장을 위한 높은 수준의 가치나 기술 창조를 위한 기술집약적 R&D 센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유형의 자회사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Ⅵ. 결론

1절 연구 결과와 시사점

본 연구는 먼저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를 현지환경요인인 시장특성과 기술특성의 영향 관계로 규명하였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기업요인인 자회사특성과 모기업특성 그리고 자회사와 모기업간 자원공유특성과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과 시장지배력이라는 요인을 바탕으로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였고 자회사의 핵심 역량인 R&D 활동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신평신용정보(주) Kis Value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내 투자된 해외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2010년 기업 결산 외국인투자기업 자료 중 외국인 투자지분 비중이 50% 이상인 1,016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기간은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로 이를 통해 수거된 설문 163개(16.04%) 중 설문지 정제 작업을 통해 19개의 기업설문을 제외한 총 144개(14.17%)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 SEPT Ⅰ과 SEPT Ⅱ에서의 가설 검정을 위한 실증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시장의 기술특성인 R&D 활동을 위한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연구 수준은 한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해외다국적기업이 국내자회사를 통해 한국 시장이 지닌 R&D 활동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서 기업 역량 강화와 효율적 기술 개발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것으로 한국 시장의 산업기술력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시장 동향과 제품 및 기술에 연관된 다양한 정보 등을 파악하여 시장 예측과 이용 가능한 기업 가치를 얻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특성인 사업규모는 높은 수준의 매출액과 종업원 수와 상당부분 연관성을 가지며 R&D 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시장 내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높은 R&D 활동 수준 유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자본과 사업 규모를 가진 해외다국적기업 자회사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유치는 한국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과 노동시장의 수요를 높이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기업 간 자원의 공유 수준은 기업의 R&D 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정보는 상당부분 암묵적 지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의 전파와 확산을 위해 기업 간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공유를 통해 핵심 자원과 기술 전파의 외부 유출에 대한 위험 감소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무형자원뿐만이 아닌 유형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과 제품의 내부거래 역시 R&D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유·무형 자원의 공유와 교환은 높은 수준의 기업 간 부품 및 제품에 대한 내·

외부적 거래 수준과 공유 정도와 함께 자회사 혹은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확산과 이용에 대한 사용료나 로열티의 형태로 지불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시장특성변수와 모기업특성 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에 관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R&D 활동이 갖는 기업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를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그룹화한 후 분석한 결과라고 사료되어진다.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 유형 구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전체 144개 조사 대상기업 중 자회사의 유형은 흡수·활용자적 자회사(Sponge)가 103개(71.5%) > 사용자적 자회사(Local User)는 27개(18.7%) > 선도적 자회사(Global Leader)는 14개(9.8%)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창조적 자회사(Creator)는 조사되지 않았다. 또한 유형별 R&D 활동 수준과 시장경쟁력 수준은 선도적 자회사가 3.19와 3.43 > 흡수·활용자적 자회사가 1.83과 3.18 > 사용자적 자회사가 1.33과 1.93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국내시장 해외자회사의 분포에서 4개 중 3개는 흡수·활용자적 자회사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자회사의 기능과 역할이 다국적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한국 시장에 적용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내에서 기술집약적이고 선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적 자회사의 비율이 9.8%로 낮고 창조적 자회사 유형은 전무하다는 결과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대응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시장이 가진 기술력과 다국적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력과 시장 정보력에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한국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고급 인적자원을 가진 한국시장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실적으로 해외기업에 의한 국내 시장진출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R&D 활동의 실적과 성과 분석에 치우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R&D 활동 수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실증적 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를 시장 지배력과 국내 자회사 역량의 활용이라는 요인을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 자회사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R&D 활동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자회사가 가진 핵심 역량인 R&D 활동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서 자회사의 역할과 기능뿐만이 아니라 다국적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셋째, 기술특성이 R&D 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해외다국적기업은 시장의 기술과 연구기관 등의 인프라 활용을 목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입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다국적기업과 높은 수준의 R&D 활동 수준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화되고 높은 수준의 연구 인력과 기관을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기술 시장은 선진 기술과 자원 유입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다시 국내 연구 인프라와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Splillover 효과라는 선순환 과정을 갖게 될 것이다.

넷째, 한국 내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높은 R&D 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해외 자본과 규모의 다국적기업 자회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증가와 노동시장의 수요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얻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국내 자회사의 R&D 활동 수준 향상을 위해 높은 수준의 기술과 자본의 교류와 공유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적 공유는 다국적기업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전파 받고 확산하게 됨으로 국내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한국 시장 내에서 개발된 기술력과 정보 개발은 결국 해외 시장으로의 전파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기술 전파는 결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용 지불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2절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자회사 유형을 구분하고 R&D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다국적기업 자회사 연구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본 연구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신평신용정보(주)의 Kis Value 자료 중 50%이상의 해외지분을 가진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고, 또한 수집된 표본 수의 한계로 인해 국내 모든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국내 자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자회사 역량의 다국적기업 활용과 시장지배력이라는 두 요인을 바탕으로 척도화한 M-M모형을 설정함으로써 기업 특유의 모든 차

별화된 기업 전략과 대내외적 상황의 복합 요인들을 모두 적용시키는데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측정변수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 응답자의 주관적인 요인이 개입될 수 있기에 이를 통한 측정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R&D 활동은 기업 특유의 차별화된 대내외적 상황과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되는 경향이 높지만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요인을 통제하기에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앞으로의 연구의 과제는 먼저 해외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각각의 유형별 자회사가 가지는 R&D 활동 수준에 대한 차이를 증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별 차이와 함께 산업별로 차별화된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유형별 차별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또한 자회사의 R&D 활동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에 대한 2차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 기업 설문 응답 자료와 기업 2차 자료와의 1대 1일 비교 검정을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와 어려움을 보완해 2차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R&D 활동 수준 결정 요인 분석과 자회사 유형별 R&D 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김기국(2003),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2003-15.

김완민, 최순권(2006), 해외자회사 기술개발 수준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구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2006-09.

이강문 외(2010), 자회사의 지식 창출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관계적 속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제13권 제3호, 151-172.

이남순(2000), 영국의 신경쟁법(1998)상의 시장지배력의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제30호, 271-292.

이유재(2000), 시도이론에 관한 이론적 연구: 목표 지향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마케팅저널, 제2권 제2호, 39-62.

이훈영(2006), 마케팅조사론, 도서출판 청람.

_____(2006), SPSS를 이용한 데이터분석, 도서출판 청람.

장세진(2010), 글로벌경영, 박영사.

장윤종 외(2007),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제534호.

정해조, 김창완(2001), 본사-자회사간 자원공유와 통제수준간의 관계, 국제경영리뷰, 제5권 제2호, 211-222.

최순권(2007), 해외파견자 특성이 본사와 해외자회사 간 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경영리뷰, 제11권 제4

호, 209-232.

_____(2008), 국내진출 해외기업들의 R&D 관련 투자규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8권, 377-408.

허문구(2007), 인적자본, 인력구성 및 전략, 경영학연구, 제36권 제1호, 35-64.

KOITA(2007), 외국인 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KOTRA(2006), 외국인 투자기업 R&D 현황조사 보고서.

국외 문헌

Barney, J. B. and Hester, S. W.(2006), *Strategic Management and Competitive Advantage: Concepts and Cases*, 1st Edition, Prentice Hall.

Bartlett, C. A. and Ghoshal, S.(1986), ″Tap Your Subsidiaries for Global Reach," *Harvard Business Review*, 62(6), 87 - 94.

_____ and Ghoshal, S.(1989), *Managing Across Borders, The Transnational Solution*, Boston, Mas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elderbos, R.(2003), ″Entry Mode, Organizational Learning and R&D in Foreign Affiliates: Evidence from Japanese Firm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3), 235-259.

Birkinshaw, J. M. and Hood, N.(1998), ″Multinational Subsidiary Evolution: Capability and Charter Change in Foreign-owned Subsidiary Compan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4),

773-795.

_____ and Morrison, A. J.(1995), "Configurations of Strategy and Structure in Subsidiar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6(4), 729-753.

Blomstrom, M. and Sjoholm, F.(1999), "Technology Transfer and Spillovers: Does Local Participation with Multinations Matter," *European Economic Review,* 43(4-6), 915-923.

Buckley, P. J. and Casson, M.(1998), "Analyzing Foreign Market Entry Strategies: Extending the Internalization Approach",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9(3), 539-561.

Calof, J. L.(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and Export Behavior Revisited",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5(2), 367-387.

Cantwell, J.(1991), The Theory of Technological Competence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tional Production, in D. McFetridge (ed.), *Foreign Investment,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University of Calgary Press: Calgary.

_____(1992),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P. J. Buckley and M. Casson(Eds),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World Economy:Essays in Honour of John Dunning,* Aldershot, UK and Brookfield, USA: Edward Elgar, 20-40.

Choi, S. G. and Eriksson, K.(2001), "The Internationalisation Process as Knowledge Transl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Relationships", in Hakansson, H. & Johanson, J.(Eds), *Business Network Learning,*

Oxford: Elsevier Science.

Christian, L. B. and Sierra, C.(2002), "Location versus Home Country Advantages in R&D Activities: Some Further Results on Multinationals Locational Strategies", *Research Policy,* 31(4), 589-609.

Daniels, J. D., Radebaugh, L. H. and Sullivan, D. P.(2007),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s and Operations,* Pearson Education, Inc.

David, L.(2000), Multinational Research Subsidiaries in Denmark : *The Emergence and Impact of MNC Centres of Excellence,* Macmillan Press ltd.

Davis, L. N. and Meyer, K. E.(2004), "Subsidiar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Local Environmen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3, 359-382.

Dörrenbächer, C. and Wortmann, M.(1991), "The Internationalisation of Corporate Reserch and Development," *Intereconomics,* 26(3), 139-144.

Dunning, J. H.(1980),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ome Empirical Tes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1(1), 9-31.

_____(1988), "The Eclectic Paradigm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 Restatement and Some Possible Exten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9(1), 1-31.

_____(1998), "Loca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A Neglected Factor?",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9(1), 45-66.

_____ & Narula, R.(2004), *Multinational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 New Agenda, Edward Elgar Publishing, Inc..

Edwards, R. B.(2001), "Benchmarking Global Str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Reserch Technology Management*, 44(2), 25-36.

Enright, M. J. and Subramanian, V.(2007), "An Organizing Framework for MNC Subsidiary Typologie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s*, 47(6), 895-924.

Eriksson, L., Johansson, E., Kettaneh, W. N. and Wold, S.(2006), *Multi- and Megavariate Data Analysis-Principles and Applications*. Umetrics Inc.

Etemad, H. and Dulude, L. S.(1986), *Managing the Multinational Subsidiary,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to Host Nation R&D Policies*, London Croom Helm.

Forsgren, M.(1989), *Managing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 The Swedish Case*, Routledge, London.

_____, M., Holm, U. & Johanson, J.(1994), Internationalization of Second Degree: The Emergence of European Based Centres in Swedish Firms: *Internationalization of the Second Degree:* Reprocentralen, HSC, Uppsala.

Fratocchi, L. and Lorenzoni, G.(2000), Mergers and acquisitions as establishment model for Centres of Excellence - the Case of Italian Subsidiaries: *The Emergence and Impact of MNC Centres of Excellence*, Macmillan Press ltd.

Frost, T. S., Birkinshaw, J. M. and Ensign, P. C.(2002), "Centres of Excellence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11), 997 - 1018.

Furu, P.(2000), Characteristics of R&D Centres of Excellence in MNCs: *The Emergence and Impact of MNC Centres of Excellence*, Macmillan Press ltd.

Gates, S. R. and Egelhoff, W. G.(1986), ″Centralization in Headquarters-Subsidiary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17(2), 71-92.

Gerybadze, A and Reger, G.(1999), "Globalization of R&D: Recent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in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search Policy*, 28, 251-274.

Holm, U. and Sharma, D.(2000), The Impact of Centres of Excellence on MNC Performance: *The Emergence and Impact of MNC Centres of Excellence*, Macmillan Press ltd.

_____ and Pedersen, T.(2000), *The Emergence and Impact of MNC Centres of Excellence*, Macmillan Press ltd.

Jarillo, J. C. and Martinez, J. I.(1990), ″Different Roles for Subsidiaries: The Cas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Spai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7), 501 - 512.

Johanson, J. and Vahlne, J. E.(1977),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 A Model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Foreign Commit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8(1), 23-32.

John, G.(1984),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Some Antecedents of Opportunism in a Marketing Channel",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1(3), 278-289.

Kuemmerle, W.(1999), "The Drive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Research and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0(1), 1-24.

Langlois, R.(1992), "Transaction-Cost Economics in Real Time,"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1), 99-127.

Madhok, A.(1997), "Cost, Value and Foreign Market Entry Mode: The Transaction and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 39-61.

Meyer, D. A. and Mizushima, A.(1989), "Global R&D Management", *R&D Management,* 19(2), 135-146.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Ove, G., Hakanson, L. and Sjöolander, S.(1992), *Technology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ization of R&D and Technology,* Chichester: John Wiley & Sons, pp. 1-18.

Papanastassiou, M. and Pearce R.(1997), "Technology Sourcing and the Strategic Roles of Manufacturing Subsidiaries in the UK: Local Competences and Global Competitivenes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37(1), 5-25.

Patel, P. and Vega, M.(1999), "Patterns of Internationalization of Corporate Technology: Location vs. Home Country Advantages," *Research Policy,* 28, 145-155.

Pavitt, K.(2002), "Innovating Routines in the Business Firm: What Corporate Tasks Should They be Accomplishing?," *Oxford Journals,* 11(1), 117-133.

Perlmutter, H. V.(1969), "The Tortuous Evolution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World Journal of Business,* 4(1), 9-18.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Y., Podsakoff, N. P.(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Polanyi, M.(1966), *The Tacit Dimens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orter, E. M.(1985), *The 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 The Free Press.

Prahalad, C. K. and Doz, Y. L.(1987), *The Multunational Mission,* New York the Free Press.

Reddy, P.(2010), *Global Innovation in Emerging Economies,* Routledge.

Rodan, S. and Galunic, D. C.(2004), ″More than Network Structure: How Knowledge Heterogeneity Influence Managerial Performance and Innovativenes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5(6), 541-562.

Roth, K. and Morrison, A. J.(1990),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Integration-Responsiveness Framework in Global Indus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1(4), 541-564.

Rugman, A. M. and Verbeke, A.(2003), ″Extending the Theory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Internalization and Strategic Management Perspectiv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4(2), 125-137.

Sadowski, B. M. and Sadowski, R. J.(2006), "On the Innovativeness of Foreign Affiliates: Evidence from Companies in the Netherlands," *Research Policy,* 35(3), 447-462.

Shan, W. and Song, J.(1997),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Sourcing of Technological Advantage: Evidence from the Biotechnology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8(2), 237-284.

Taggart, J. H.(1997), "Autonomy and Procedural Justice: A Framework for Evaluating Subsidiary Strateg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8(1), 51 - 76.

_____(1997), "An Evalution of the Integration-Responsiveness Framework: MNC Manufacturing Subsidiaries in the UK,"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37(4), 295-318.

Tsai, W. & Ghoshal, S.(1998),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4), 464-476.

UNCTAD(2005), *Globalization of R&D and Developing Countries, Proceedings of the Expert Meeting Geneva.*

UNCTAD(2010),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Vernon, R.(1979), "The Product Cycle Hypothesis in a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1(4), 255-267.

White, R. E. and Poynter, T. A.(1984), "Strategies for Foreign-owned Subsidiaries in Canada," *Business Quarterly*, 49(2), 59 - 69.

Wortmann, M.(1990), "Multinationals and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D: New Developments in German Companies," *Research Policy*, 19(2), 175-183.

Yoram, W., Douglas, S. P. and Perlmutter, H. V.(1973), "Guidelines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Marketing Strategies," *Journal of*

Marketing, 37(2), 14-23.

Zander, I.(1999), "How Do You Mean 'Global'?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nnovation Networks in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Research Policy*, 28, pp. 195-213.

Zedtwitz, V. M. and Gassmann, O.(2002), "Market versus Technology Drive in R&D Internationalization: Four Different Patterns of Managing Research and Development," *Research Policy*, 31(4), 569-588.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List No					ID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수행에 관한 투자 및 R&D 활성화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성길용입니다. 저는 이번 박사학위논문을 위한 주제로 국내 주소지를 둔『**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를 대상**으로『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수행에 관한 투자 및 R&D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로 향후 한국 시장 내 기업의 시장성을 예측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학술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관련기업의 소중한 정보를 듣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에 의거 기업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2011년 8월

■ 연구책임 :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최순권 교수님 성길용 박사과정
■ 연락처 :
Tel : 051-862-1606, Fax : 051-862-1608, xxx73@hanmail.net

A. 업체 일반현황

A1. 업체 설립방법 : ① 해외투자 설립 ② 인수 합병(M&A)

③ 그 외 ☞ **설문중단**

A2. 회사명		A3. 전화	
A4. 회사주소	_____광역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A5. 응답자이름		A6. 설립일	( )년도
A7. 종업원 수	( )**명**	A8. 매출액	( )**백 만원**
A9. 자본금	( )만 달러	A10.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A11.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세 이상		
A12. 직급	① 최고 경영층(임원급) ② 중간 관리층(부장・차장・과장급) ③ 일반사무직(대리이하)		
A13.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A14. 근속기간	① 5년 미만 ② 5~9년 ③ 10~14년 ④ 15년 이상		
A15. 아래(B8)의 업종 보기에서 **귀사의 업종 번호를 적어주세요.**(_____)			

B. 모기업 일반현황

B. **귀사 모기업(해외의 다국적 모기업)**에 대해 다음의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B1) 모기업명		
B2) 모기업 본사 소재 국가		
B3) 모기업 종업원 수	대략 (	)**명**
B4) 모기업 매출액 (2010년 결산 기준)	대략 (	)**백만 원**
B5) 모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회사 수	대략 (	)**개**
B6) 모기업이 최초로 해외 자회사를 설립한 시기	대략 (	)**년도**
B7) 모기업의 한국자회사 투자 지분율	대략 (	)**%**
B8) 모기업의 핵심 제품/서비스가 속한 산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㉑ 국제 및 외국기관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C. 사업 활동 분야별 경쟁력

C1. 귀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활동**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 응답 가능)

수행 중인 사업 활동	수행	수행안함
1) 연구개발(R&D)	①	②
2) 생산(제품/서비스)	①	②
3) 물적 유통/분배	①	②
4) 구매(부품 조달)	①	②
5) 인적자원관리(HRM)	①	②
6) 판매	①	②

C2-3. **귀사와 모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의 **한국 시장 내 경쟁우위** 수준과 글로벌 시장 내 경쟁우위 수준에 대해 체크해 주십시오.

경쟁우위 수준	C2. **자사**의 **한국 시장** 내 경쟁우위 수준					C3. **모기업**의 **글로벌 시장** 내 경쟁우위 수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연구개발(R&D)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시장 경쟁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C4. 귀사의 경쟁우위 항목이나 기술력을 **모기업이 인정하고 본사나 다른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사와 모기업・타지사와의 관계	C4. **모기업・타지사에서 인정하고 사용 여부**	
	사용	사용 안함
자회사의 기술력	①	②

C5. **귀사와 모기업과의 교류 수준**을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모기업과의 교류 수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인적 교류	①	②	③	④	⑤
2) 기술 및 정보 교류	①	②	③	④	⑤
3) 부품(제품)의 내부 거래	①	②	③	④	⑤
4) 자금(자산)의 내부 거래	①	②	③	④	⑤

C6. 귀사의 **매출액**은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C7. 귀사의 **수익률**은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C8. 귀사의 **시장 점유율**은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D. 연구개발(R&D) 분야

D1. 귀사는 **언제부터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였습니까?
약 (_____)**년도**부터

D2. 귀사의 **연구개발**(R&D) **관련 연간 지출**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약 (_____)**백만원**

D3. 귀사의 **연구개발**(R&D) **관련 인력**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약 (_____)**명**

D4. 귀사의 **사업 수행에 있어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D5. 귀사의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모기업의 투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D6. 귀사의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최근 3년간 모기업의 투자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D7. 귀사의 **연구개발**(R&D) **활동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E. 소속 산업 분야의 환경

E1. **귀사가 속한 산업의 수명주기**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도입기 ② 성장기 ③ 성숙기 ④ 쇠퇴기

E2. **귀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해 주세요.

귀사가 속한 기업의 산업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렇다
1) 한국 시장 내에서의 경쟁(경쟁강도)이 매우 치열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글로벌 수준의 우수한 공급자(supplier)가 존재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내 산업 수요가 충분히 크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 내 산업 수요가 매우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 내 산업의 성장성이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6) 한국 내 산업은 글로벌화 정도가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7) 산업의 한국 내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①	②	③	④	⑤
8) 한국 내 산업 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9) 산업과 연관된 우수한 연구기관이 충분히 존재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연구기관들의 연구 수준이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11) 산업 발전에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